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 學位論文

先秦 兩漢 時期 動植物寓言 研究

— 《莊子》, 《韓非子》, 《呂氏春秋》,
《淮南子》를 中心으로 —

2018年 8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文學專攻

全 雅 永

先秦 兩漢 時期 動植物寓言 研究

— 《莊子》, 《韓非子》, 《呂氏春秋》,
《淮南子》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 越 會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5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文學專攻
全 雅 永

全雅永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8年 7月

委 員 長 _____ (인)

副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국문초록

寓言은 바깥의 것을 빌려 논한 것[藉外論之]으로 다른 것에 빗대어 한 이야기이다. 즉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지 않고 은밀하게 비유의 방식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우언은 춘추전국시기라는 혼란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당시 지식인들의 정보 전달과 설득을 위한 유용한 글쓰기 방식이었다.

기존 연구들은 전통시기 중국의 우언들을 발췌하고 목록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거나 우언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이야기가 가지는 寓意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언의 서사구조를 분석할 경우 연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귀결된다. 하나는 우언을 하나의 수사 방식으로 국한하여 정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언을 담화 또는 글쓰기의 방식으로 가정하고 비교적 넓은 범위 하에서 정의하는 경우이다.

본 논문은 우언을 서사 양식과 관련하여 연구한 선행 연구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는 우언을 글쓰기의 한 양상으로 전제하여 보다 큰 범위에서의 서사 속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先秦 兩漢 時期의 제자백가서 중에서 《장자(莊子)》, 《한비자(韓非子)》, 《여씨춘추(呂氏春秋)》, 《회남자(淮南子)》를 연구 대상 텍스트로 삼는다. 나아가 기존 연구에서 인물 중심의 우언을 연구한 것과는 달리 동식물을 이야기의 소재 혹은 제재로 활용한 우언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연구 대상 텍스트에서 동식물우언의 활용 여부를 판단하여 그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장자》, 《한비자》, 《여씨춘추》와 《회남자》는 선진 양한 시기의 제자백가서 중에서도 서사와 의론이 결합된 ‘의론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텍스트이다. 그 중에서 《장자》와 《한비자》는 동식물우언에서도 의인법을 활용하여 만든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장자》와 《한비자》의 동식물우언은 의인법을 활용할 경우 우언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우의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두 텍스트들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은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묵지 않아도 각각의 우언이 저자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낼 수 있다.

반면, 《여씨춘추》와 《회남자》는 동식물우언이 사용되었지만 의인법을 활용하여 이야기들을 구성하는 경우가 없다. 《여씨춘추》와 《회남자》의 동식물우언에서도 《장자》나 《한비자》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처럼 독자적인 우의를 가지는 우언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여씨춘추》와 《회남자》의 동식물우언은 작가의 편집 의도에 따라 다른 우의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언이 텍스트 전반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필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 양한 시기의 우언 중에서도 동식물을 활용한 우언들만을 가려 분석하였다. 동식물우언을 발췌하고 분석한 결과 그 수량은 명청시기 중국에서 《이습우화》가 번역된 이후의 수량보다는 비교적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인법이 활용된 동식물우언의 수량 역시 적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동식물우언은 전통시기 중국 특히 선진 양한 시기 다양한 모습들의 이야기가 발생하면서 만들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또한 꾸준하게 이야기로 만들어져왔지만 동식물우언의 수량이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야기의 수보다는 적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은 바로 상상과 허구보다는 역사 혹은 사건의 나열을 중시했던 당시의 인식 때문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주요어: 우언, 서사, 선진, 양한, 동식물우언, 《莊子》, 《韓非子》, 《呂氏春秋》,
《淮南子》

학 번: 2015-22444

목 차

국문초록	i
제 1 장 서 론	1
제 1절 연구목적	1
제 2 절 기존연구 검토	6
제 3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8
제 2 장 의인법을 활용한 동식물우언	10
제 1 절 《莊子》의 동식물우언	10
1.1 서술 주체의 고백을 통한 풍자	11
1.2 대비적 서사를 통한 의식표출	16
1.3 사유의 충돌과 융합	19
제 2 절 《韓非子》의 동식물우언	22
2.1 은밀한 설득의 방식	24
2.2 서사 내 설득 대상의 교화	25
제 3 절 예증으로 활용된 경우	31
제 4 절 소결: 개별 우언의 우의를 통한 주장	34
제 3 장 의인법이 활용되지 않은 동식물우언	35
제 1 절 《呂氏春秋》의 동식물우언	35
1.1. 서사의 교차 관계를 통한 우의 획득	37
1.2. 체계적 구조를 통한 주제 구현	45

제 2 절 《淮南子》의 동식물우언	47
2.1.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한 우의 발현	48
2.2. 의도적 편집에 의한 주제 발현	50
제 3 절 예증으로 활용된 경우	52
제 4 절 소결: 편집 의도에 따른 우의 획득의 가능성	54
 제 4 장 立論의 도구로서의 동식물우언	55
제 1 절 구조의 유사성을 바탕에 둔 이질성	55
제 2 절 설득의 구성과 사유의 구현	55
 제 5 장 결 론	59
 【參考文獻】	61
 中文提要	65

표 목 차

[표 2-1] 의인법을 활용한 《莊子》 동식물우언 서사 특성 분석	11
[표 3-1] 의인법을 활용한 《韓非子》 동식물우언 서사 특성 분석	23
[표 4-1] 《呂氏春秋》 동식물우언 서사 특성 분석	36
[표 5-1] 《淮南子》 동식물우언 서사 특성 분석	4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선진 양한 시기의 제자백가서 중에서 ‘의론인 이야기’¹⁾를 적극 활용한 《장자(莊子)》, 《한비자(韓非子)》, 《여씨춘추(呂氏春秋)》, 《회남자(淮南子)》에서 동식물우언의 활용 여부를 판단하여 그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 시기 중국 진(秦)나라에서는 정전제도(井田制度)가 폐지됨에 따라 농노와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최초의 지식인 집단인 ‘士’ 집단이 출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마련되었다. ‘士’ 집단은 문자 전승을 통해 다양한 지식의 축적과 재생산을 이루었으며 유세(遊說) 행위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 했다. 그들은 춘추전국시기²⁾라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논쟁하며 담론의 패권을 손에 넣기 위해 경쟁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사상과 문화의 혁신을 이루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고 다양한 학설의 발생도 촉진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지식인들은 이야기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담론을 전개해나갔다. 이 때 이야기들은 문자를 통해 기록되면서 ‘스스로의 생명력을 형성하기 시작’³⁾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시 말해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던 시기와는 차이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
- 1) ‘의론인 이야기’는 서사와 의론이 결합된 형식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개념과 명제의 정합적인 구조화 없이도 높은 수준의 학문과 정신문명을 일구어 낸 전통시기 중국인들에게는 서사와 의론의 결합이 익숙한 담화 양식이었다. 이것은 서사와 의론이 결합된 ‘의론인 이야기’로 학문과 정신을 사유하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표현한다.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제자백가의 글쓰기는 바로 이 점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된다. (김월화 외 9인 공저, 《문명장치로서의 이야기》, 27쪽 참고)
 - 2) 이 시기는 혼란 속에서 발생한 여러 학파의 사상들이 한(漢)이라는 제국의 통일을 발판으로 삼아 하나의 사상으로 수렴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중국 사상사의 흐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춘추시대에서 한나라 초의 시기는 중국 역사상 철학과 연구 흥취가 왕성했던 시기로 자학시대(字學時代)라고 불리기도 한다. (풍우란, 박성규 옮김, 《중국철학사》, 29쪽 참고)
 - 3) 서경호, 《중국소설사》, 85쪽 참고.

이야기들은 점차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언 글쓰기는 당시 지식인들의 정보 전달과 설득을 위해 활용한 다양한 이야기들 중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⁴⁾ 우언이라는 말은 《장자》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며 〈우언〉편에서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언(寓言)은 열에 아홉이고 중언(重言)은 열에 일곱이며 치언은 매일 나오는 것으로 자연의 경계[天倪]와 조화된다. 우언은 열에 아홉으로 바깥의 것을 빌려 논한 것이다. 친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중매를 서지 못하는데 친아버지가 아들을 칭찬하는 것은 친아버지가 아닌 사람의 칭찬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인 것이다. 자신과 의견이 같을 때는 맞장구치지만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반대하므로 자신과 같을 때는 옳은 것이고 자신과 다를 때는 그른 것이라 한다.⁵⁾

장자는 중매를 예로 들어 ‘바깥의 것을 빌려 논한 것[藉外論之]’이라는 우언의 글쓰기를 설명하고 있다. 서술의 말미에 드러난 것처럼 장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생각이 같을 때는 맞장구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를 때는 반대하니, 자신과 같으면 그것은 옳은 것이요, 자신과 다르면 그것은 그른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언의 글쓰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장자는 〈제물론(齊物論)〉에서 위대한 도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며 위대한 이론은 말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⁶⁾이라고 하였다. 즉 우주적인 거시적 관점

4) 陳蒲清은 중국 고대 우언의 분류를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저자는 다섯 개의 분류 중에서 선진시기를 우언의 탄생과 ‘철리 우언’이 등장한 시기로, 양한 시기를 ‘권계 우언’이 나타난 시기로 판단한다. 이 시기의 우언은 바로 역사의 경험과 교훈을 정치나 생활에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포청, 오수형 옮김, 《중국우언문학사》, 서론을 참고.

5) 《莊子》〈寓言〉, “寓言十九, 重言十七, 卮言日出, 和以天倪. 寓言十九, 藉外論之. 親父不爲其子媒. 親父譽之, 不若非其父者也; 非吾罪也, 人之罪也. 與己同則應, 不與己同則反, 同於己爲是之, 異於己爲非之.” - 莊周, 김학주 옮김, 665쪽.

6) 《莊子》〈齊物論〉, “夫大道不稱, 大辯不言, 大仁不仁, 大廉不嘽, 大勇不伎. 道昭而不道, 言辯而不及, 仁常而不成, 廉清而不信, 勇伎而不成. 五者園而幾向方矣, 故知止其所不知, 至矣. 孰知不言之辯, 不道之道? 若有能知, 此之謂天府. 注焉而不滿, 酌焉而不竭, 而不知其所由來, 此之謂葆光.” - 王先謙, 劉武, 《莊子集解·莊子集解內篇補正》, 83쪽.

에서 인간을 인식할 것을 주문했던 장자는 편협한 사고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의 태도를 언급하며, 자신이 우언을 활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우언의 글쓰기는 장자가 바탕으로 하는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장자는 도의 본성에 맞는 언어를 활용할 것을 주장하는데,⁷⁾ 장자의 ‘무언(無言)’이라는 방법을 통한 말의 사용이 이를 방증한다. ‘무언’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변론하지 않고 경계를 초월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⁸⁾

우언이라는 말에 대한 역대 주석가들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논의들을 포함한다. 바로 ‘우(寓)’는 ‘기탁한다[寄]’는 의미이며 타인(他人)에 빗대어 한 이야기라는 것이다.⁹⁾ 이 지점에서 우언이라는 글쓰기의 특징이 드러난다. 바깥의 것을 활용하여 논함[藉外論之]으로써 원래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은밀하게 숨기고 타인과의 의견 불일치를 잠식시키기 위한 익숙함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文心雕龍》〈諧隱〉의 ‘은(隱)’에 대한 해석은 은밀하게 숨겨 드러내지 않는다는 우언의 속성과 연관되는 부분이다. 유협은 “은(隱)이라는 것은 숨기는 것이다. 꾸며서 하는 말로 진의를 숨기고, 완곡하게 비유를 들어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¹⁰⁾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우언은 바깥의 것을 빌려와 이야기하는 형식과 원래 말하고자 했던 실질적인 의미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진포청의 현대적 우언의 정의¹¹⁾를 빌려 설명하자면 이야기라는 표층적인 구조와 전달하

7) 백승도는 장자가 도의 본성에 맞는 언어를 활용한 것을 두고 표상주의에서 말하는 대상 언어 또는 시비를 위한 언어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사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백승도, 〈『莊子』에서 ‘도’는 어떻게 말해지고 있는가?: ‘卮言’을 통해 본 「內篇」의 구조〉, 215-216쪽 참고)

8) 《莊子》〈寓言〉, “言無言, 終身言, 未嘗言. 終身不言, 未嘗不言. 有自也而可, 有自也而不可.”, - 번역은 莊周, 김학주 역, 위의 책, 666쪽 참고.

9) 우언에 대한 역대 주석가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곽상(郭象)은 ‘타인에 기탁한 것으로 10번 말하면 9번은 믿어지는 것이다.[寄之他人, 則十言而九見信]’라고 하였으며, ‘자신의 말이 세속에서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바깥의 것을 빌려온 것이다. 견오, 연숙의 이야기가 그런 류이다.[言出於己, 俗多不受, 故借外耳. 肩吾, 連叔之類]’라고 주석한바 있다. 성현영(成玄英) 역시 ‘우(寓)는 기탁한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매하여 질투하니 말을 기탁한 것이 10중에 9이다[寓, 寄也. 世人愚迷, 妄爲猜忌, 寓之言, 十居其九]’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곽경번은 이에 ‘그 뜻은 여기에 두고 말은 저기에 기탁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살펴보면 역대 주석가들의 우언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寄’와 ‘他人’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郭慶藩, 《莊子集解》, 947쪽 참고)

10) “隱者, 隱也; 遜辭以隱意, 譎譬以指事也.” - 劉勰, 周振甫 注, 《文心雕龍注釋》, 276쪽.

고자 하는 숨겨진 의미[寓意]의 심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언 글쓰기는 자신의 학설과 주장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활용한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언의 이야기 구조와 숨겨진 의미를 연구하는 것은 당시 우언 글쓰기 방식을 활용한 지식인들의 사유 방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된다고 하겠다.

《장자》를 포함한 전통시기 중국 지식인들의 글에서 나타나는 우언 글쓰기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우언은 “사실의 기록과 같은 서사가 우위를 점하고 ‘상상력’을 기초로 한 허구적 서사가 그 집합에 귀속되어 있었던”¹²⁾ 전통시기 중국의 상황에서 충분히 수긍 가능한 지점이다.

한편 동양의 우언과 비견되는 서양의 우화는 일반적으로 허구성과 의인화—동물과 같은 비인간적 소재를 활용하는—가 주요한 특성으로 파악된다.¹³⁾ 그렇다면 전통시기 중국 지식인들의 글에서는 동물 혹은 식물과 같은 비인간적 존재가 인간적 속성을 부여받아 이야기를 구성하는 우언은 없는 것인가? 하고자하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동식물에 빗대어 표현한 경우는 이미 《詩經》전통에서도 존재했다. 《시경》에서는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 경물을 활용하였다.¹⁴⁾ 비유의 수법은 이야기가 기록되고 점점 복잡한 형식을 갖출 수 있게 되자 우언이라는 글쓰기의 양상으로도 등장하게 되었다. 우언 중에서 동식물을 활용한 우언들은 이미 선진 양한 시기에서부터 많은 작자들의 선택을 받아 꾸준히 활용되어 왔다. 비단 제자백가서에서뿐만 아니라 위진 남북조 시기의 《苻

11) 우언에 대한 현대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표층적 구조인 이야기성[故事性]과 심층적 구조인 숨겨진 의미[寓意]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세한 논의는 진포청, 오수형 역, 앞의 책, 서론 부분을 참고할 것.

12) 홍상훈, 《전통 시기 중국의 서사론》, 41쪽 참고.

13) 진포청은 우언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서양의 우화(fable)에 대한 개념을 함께 덧붙인다. 진포청은 미국의 《표준 참고 백과전서》에 따라 정의 내린다. 논자에 따르면 우화란 “문학에서 허구적인 이야기 줄거리를 표시한 술어. 더 일반적으로는 산문(散文)이나 시가(詩歌)로 창작한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보편적인 도덕관념이나 숭고한 진리를 표현하는 문학 갈래를 특별히 가리킨다. 이 도덕관념은 모두 상징적인 방법으로 표현해 내는데, 그것은 흔히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특히나 사람의 이성적 특징이 부여된 동물들 사이의 모순 투쟁을 통해 표현된다.”라고 하였다. (진포청, 윤주필 역, 《세계의 우언과 알레고리》, 32쪽 재인용)

14) 이옥진, 《《詩經》 자연 경물 모티프의 은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子》¹⁵⁾, 唐代 柳宗元の 〈三戒〉, 宋代 蘇軾의 《艾子雜說》¹⁶⁾, 明代 江盈科의 《雪濤諧史》¹⁷⁾, 明清 時期 기독교선교사에 의해 《이습우화》가 전해진 후 중국어로 번역된 《況義》¹⁸⁾ 및 《意拾喻言》을 비롯하여 吳沃堯의 《俏皮話》¹⁹⁾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언집 혹은 우언이 포함되어있는 저서들에서 동식물은 우언의 소재 또는 제재로 끊임없이 등장했다고 하겠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서양의 《이습우화》가 중국으로 전해져 들어온 후에야 동식물우언 중에서도 의인화를 활용한 우언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 이전까지 전통시기 중국에서는 동식물우언이 꾸준히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의인법을 주요한 수사 방식으로 활용한 우언 모음집은 없었다. 또한 의인법이 활용된 동식물우언의 수량도 적은 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왜 발생하게 된 것일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현상이다. 당연히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 양한 시기 제자백가서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의

-
- 15) 《苻子》는 魏晉南北朝時代(220~286)에 지어진 이론서이다. 《부자》는 氏族 작가인 苻朗이 지었다. 부랑은 字가 元達이며 略陽의 臨渭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다. 《부자》는 《장자》를 모방하여 지은 우언이 많다. 또한 동물들을 활용하여 지은 우언들도 다소 존재한다. (진포청, 오수형 역, 앞의 책, 167-170쪽 참고)
- 16) 《艾子雜說》은 蘇軾(1037~1102)이 지은 우언집이다. 《애자잡설》은 개인에 의해 창작된 최초의 우언집이라고 알려져 있다. 진포청에 따르면 《애자잡설》에는 총 서른아홉 개의 우언이 실려 있다고 하였다. 《애자잡설》은 이야기 속에 艾子라는 인물을 등장시킨다. 다시 말해 이야기 속의 당사자로 삼거나 이야기를 평론하는 인물로 설정한 것이다. (이은진, 《艾子雜說》의 諧謔性 研究, 1-3쪽 참고)
- 17) 《雪濤諧史》는 晚明시기 문인 江盈科(1555~1605)가 지은 이야기 모음집이다. 강영과는 公安派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袁宏道와 교유하였다고 전해진다. 《설도해사》는 이전시기에 만들어진 이야기들과 당시 전해지던 이야기, 그리고 작가의 경험에 의해 지어진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설도해사》의 동식물우언에 활용된 동물들은 의인화되어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18) 《況義》는 프랑스선교사인 니콜라 트리고(Nicholas Trigault, 金尼閣 1577~1628)의 저작이다. 《황의》는 서양의 《이습우화》를 선별하여 번역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文言과 白話가 섞인 통속적인 문체로 구성되어있다. (오순방, 〈명청시기(明清時期) 기독교선교사(基督教宣教師)의 종교우언고사(宗教寓言故事) 서술(敘述) 특성(特性) 연구(研究) — 마테오 리치에서 윌리엄 마틴까지〉, 89-97쪽 참고)
- 19) 吳趸人(1866~1910)의 이름은 沃堯이며 원래 字는 蘭人이다. 광동 南海 사람으로 알려진다. 그는 清末의 유명한 譴責小說家이다. 대표작은 《二十年目睹之怪現象》이 있다. 진포청에 따르면 오건인은 《俏皮話》라는 우언집을 출판한 청말의 뛰어난 우언 작가이기도 하다. 《초피화》는 관료들을 뺨, 쥐, 빈대, 모기 등의 동물들에 빗대어 그려낸 우언들로 구성되어 있다. (진포청, 오수형 역, 앞의 책, 365-370쪽 참고)

발췌와 분석이 요구된다.

제 2 절 기존연구 검토

본고의 논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자면 두 가지 방향으로 귀결된다. 하나는 전통시기 중국의 우언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동식물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우언에 관한 연구이다.

전통시기 중국의 우언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이미 상당한 양이 축적 되어 있다. 우언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기존 연구로는 90년대 초에 진행된 진포청의 《중국 우언문학사》²⁰⁾와 권석환의 《先秦寓言研究》²¹⁾가 있다. 이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연구 대상 시기에 해당하는 우언들을 발췌하고 목록화하였다. 진포청은 《중국우언문학사》에서 우언에 관한 현대적 정의를 내린다. 논자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가지며 비유에 寄託하는 방식을 가져야만 우언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논지를 전개해나간다. 《先秦寓言研究》는 우언을 비유·산문·소설 등의 일부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장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그중에서도 전통시기 중국, 그 중에서도 선진 시기라는 특정 시기의 우언 연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논자는 선진 시기의 우언을 분석하면서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은 결과적으로 동식물을 소재로 하거나 제재로 한 우언들을 논의에서 배제시키게 한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2000년대에는 우언들을 발췌, 정리한 것에서 더 나아가 우언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우의를 탐구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우언의 서사구조를 분석할 경우에 우언에 대한 정의는 두 방향으로 귀결된다. 첫째, 우언을 수사 방식의 하나로 국한시켜 정의 내리는 것이다. 둘째, 우언을 담화 또는 글쓰기의 방식으로 가정하여 우언에 대한 개념을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판단하는 경우이다. 정확성의 <우언 양식의

20) 진포청, 오수형 옮김, 위의 책.

21) 권석환, 《先秦寓言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2.

서사구조와 비판정신)은 우언을 하나의 양식이라고 가정하고 그것이 정신적 원리와 정서적·내면적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우언이라는 양식은 논리적 지성이나 이성적 또는 추상적 사유로 설명해낼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논자는 우언 문학이 서사를 구축해 가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 논문은 한국의 문언소설사를 통해 우언을 고찰했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권아린의 〈우언의 ‘寄託性’에 대한 再論〉²²⁾은 우언을 특정 글쓰기 방식이라고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권아린은 이전까지 우언이라는 글쓰기를 발전시킨 집단에 대한 고려 없이 연구 되었던 기존 방식을 비판하며, ‘기탁성’의 핵심은 작가의 의도에 있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와 우의의 관계를 서사구조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논자의 연구에서는 인물 중심 우언의 서사구조에 대한 분석과 도식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논자가 도식화 한 우언의 서사구조는 인물 중심의 우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식물을 소재 또는 제재로 활용한 단형적 구조의 우언까지 포괄하여 전반적인 우언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동식물과 관련된 소재 또는 제재를 활용한 우언에 대한 연구로는 윤승준의 《動物寓言의 傳統과 寓話小說》²³⁾이 있다. 이 연구는 동물을 소재 또는 제재로 활용한 우언들을 고찰하여 우화소설의 연원을 서사문학사에 나타난 동물우언의 전통에서 찾으려 하였다. 논자는 《장자》를 활용하여 우언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 논자는 우언이 하나의 양식 개념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논의를 진행한다. 우언은 우의를 기탁하는 이야기 방식, 일종의 수사 기법, 혹은 표현방식이라는 것이다. 논자의 연구는 구체적 우언 자료를 통해 이론적 검토를 체계화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논자의 연구는 시대적 범위의 성격에 의해 이미 소설에 가까운 서사 구조를 가진 작품들을 분석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전통시기 중국을 비롯하여 논자의 연구 범위 이전 시기 동식물우언의 서사적 연원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논자의 연구는 연구 대상 텍스트가 동물 소재에만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장자》에서 등장하는 것과 유사한 식물과 관련된 우언들은 논의에서 제외되었다는 한계점

22) 권아린, 〈우언의 “기탁성(寄託性)”에 대한 재론(再論)〉, 2013.

23) 윤승준, 《動物寓言의 傳統과 寓話小說》, 月印, 1999.

을 가진다.

제 3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본고의 연구는 다음의 세 층위로 나뉜다. 첫째, 연구 범위로 지정된 선진 양한 시기 제자백가서의 동식물우언을 선별하고 그 표층적 구조를 밝힌다. 둘째, 선별된 동식물우언 속에 내포된 우의(寓意)를 밝힌다. 셋째, 이상에서 분석한 내용을 전제로 동식물우언은 당시 지식인들의 글쓰기에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으며 왜 동식물우언이 그와 같은 양상으로 활용되어야 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 대상이 되는 우언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두 가지의 이점이 있다. 먼저 우언이라는 범위에서 인식 가능한 텍스트를 발췌하여 연구하게 되면 대상 텍스트의 문학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당시 지식인들이 우언이라는 글쓰기를 통해 구성하고자 했던 사상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이야기글로 판단되지만 그 문면 속에 녹아들어 있는 정신적, 도덕적, 역사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선진 양한 시기의 제자백가서 중에서도 《장자》와 《한비자》, 《여씨춘추》, 《회남자》에 포함된 동식물우언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연구 범위로 정한 텍스트들은 작자들이 서사와 의론이 결합된 이야기라는 속성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 이야기들을 입론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텍스트들에서 우언은 글쓰기의 한 양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규범적 역사서와 정사(正史)의 종류로 분류되는 서사 저작들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²⁴⁾

본고에서 연구범위로 지정한 텍스트들은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유기적인 구조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체계적인 장절 배치, 제목 달기와 같은 글쓰기의 다양한 구현 장치를 활용한 것’이어야 한다.²⁵⁾ 《장자》, 《한

24) 진포청에 따르면 《戰國策》의 경우에도 다수의 우언이 실려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국책》은 역사서의 성격이 짙으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비자》, 《여씨춘추》, 《회남자》는 제자서 중에서도 작자들이 의론으로 구성된 이야기라는 속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 속성을 입론에 대입시켜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한 대표적 텍스트들이다. 일반적인 제자백가서들은 문장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구절을 따서 편명을 정하는 경우²⁶⁾가 많으므로, 유기적인 구조를 구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저작들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는 우언이 다량으로 집적되어 있어야 한다. 우언이 다량으로 집적되어 있지 않을 경우 우언이 저술에 활용된 주요한 글쓰기 방식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언 서사물의 수가 최소 100則 이상이 되는 텍스트들을 선별하여 연구 텍스트로 지정하였다.²⁷⁾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동식물우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 파악한 동식물우언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동식물우언에서 동식물이 의인화되어 서술 주체로 활용된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의인화가 활용되지 않아 동물이나 식물이 이야기 내에서 소재 혹은 제재로 활용된 경우이다.

첫 번째 유형은 동식물 자체가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며 우의를 포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우언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이야기가 된다. 두 번째 유형은 동식물이 소재 혹은 제재로 활용되어 직접적인 우의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서사의 흐름에 따라 상황 또는 문맥 전체를 통해서 우언이 되는 형식이다. 이와 같은 유형에서는 우언 속에서 활용된 동식물 자체에 우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서사 속에서 다른 이야기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의를 가지거나 체계적인 편집을 통해 구조적인 결합을 하여 우의를 지니게 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동식물우언이라고 판단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25) 김월희, 《〈論語〉와 〈老子〉의 글쓰기 분석 — 논증방식을 중심으로》, 2007. 14쪽 참고.

26) 가령 《논어(論語)》의 경우에는 제 1편이 〈학이(學而)〉이며 이 편명은 〈학이〉 편의 첫 구절인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의 앞 글자를 따서 이름 붙인 것이다. 《맹자(孟子)》도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편명을 삼았다. 《맹자》의 제 1편은 〈양혜왕(梁惠王)〉이며 첫 구절인 ‘孟子見梁惠王’에서 ‘孟子見’을 제외하고 이름 붙인 것이다.

27) 진포청의 조사에 따르면 《장자》는 200여 則, 《한비자》는 300여 則, 《여씨춘추》는 300여 則, 《회남자》는 140여 則의 우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진포청, 오수형 역, 앞의 책.

제 2 장 의인법을 활용한 동식물우언

제 1 절 《莊子》의 동식물우언

《莊子》는 〈內篇〉, 〈外篇〉, 〈雜篇〉의 총 3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론을 전개할 때 주로 우언의 글쓰기를 활용하였다. 그것은 “내 말의 9할은 우언이고 중언은 10중에 7이며 치언은 매일 나오는 것이니 자연의 경계와 합치된다. 우언은 10중에 9이니 바깥의 것을 빌려서 논한 것이다.”²⁸⁾라는 저자들의 진술에도 나타나 있다. 그 중에서도 〈內편〉은 장자의 사상과 우언 글쓰기가 장절 배치, 제목과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여겨진다.²⁹⁾ 본고에서는 서론에서 정의한 동식물우언의 기준에 따라 《장자》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을 발췌하였으며, 《장자》에 실려 있는 총 200則의 우언 서사물 중에서 22則이 동식물우언임을 확인하였다. 《장자》는 선진 양한 시기 제자백가서들 중에서 동식물우언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에 따라 의인법을 활용한 동식물우언의 수도 다른 텍스트들에 비해 많았다. 본고에서 파악한 의인법을 활용한 《장자》의 동식물우언은 총 7則이다.³⁰⁾ 의인법을 쓴 동식물우언의 서사적 특성을 분석한 표는 아래와 같다.

28) 《莊子》〈寓言〉, “寓言十九, 重言十七, 卮言日出, 和以天倪. 寓言十九, 藉外論之.” - 莊周, 김학주 역, 앞의 책, 665쪽.

29) 《莊子》의 전반적 구성과 〈內篇〉의 유기적 구성에 관해서는 백승도, 앞의 논문, 210-214쪽을 참고할 것.

30) 의인법이 활용된 《莊子》의 동식물우언 목록은 다음과 같다. 〈逍遙遊〉편의 매미와 학구의 비웃음[二蟲笑鵬] 이야기, 〈齊物論〉편의 안새가 봉새를 비웃다[斥鴳笑鵬] 이야기, 〈逍遙遊〉편의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朝三暮四] 이야기, 〈人間世〉편의 토지신 묘 참나무의 쓰임[櫟社樹之用] 이야기, 〈秋水〉편의 夔가 지네를 부러워하다[夔蚊蛇風] 이야기, 〈外物〉편의 수레바퀴 속의 붕어[轍中鮒魚]이야기로 총 6則의 동식물우언이 의인법을 활용하여 지어졌다.

[표 2-1] 의인법을 활용한 《莊子》 동식물우언 서사 특성 분석

《莊子》	상상 속 동식물	실제 동식물	소재	제재	서술 주제	
					소재	주제
〈逍遙遊〉 二蟲笑鵬	鯤 鵬	蜩 學鳩	-	-	蜩 學鳩	鯤 鵬
〈逍遙遊〉 斥鴳笑鵬	鯤 鵬	鴳	-	-	鴳	鯤 鵬
〈齊物論〉 朝三暮四	-	狙	-	-	狙	-
〈人間世〉 櫟社樹之用	-	櫟社樹	-	-	-	櫟社樹
〈秋水〉 夔蜥蛇風	夔	蜥 蛇	-	-	夔	-
〈秋水〉 井底之蛙	鰲	蛙	-	-	蛙	鰲
〈外物〉 轍中鮒魚	-	鮒魚	-	-	-	鮒魚

1.1 서술 주체의 고백을 통한 풍자

《莊子》에서 동식물우언이 의인법을 활용할 경우 서술 주체는 함께 대화하고 있는 상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세계관에 대해 언급하는 역할을 한다. 서술 주체의 행위는 고백의 형식으로 구체화되며 자신의 어리석음 혹은 達道하지 못한 것들을 풍자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다음은 《장자》〈秋水〉편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의 예이다.

[1] 발이 하나밖에 없는 夔라는 짐승은 발이 많은 지네를 부러워하고, 지네는 발 없이도 움직이는 뱀을 부러워하고, 뱀은 형체 없이 움직이는 바람을 부러워하고, 바람은 움직이지 않고도 사물을 살피는 눈[目]을 부러워하고, 눈은 가지 않고도 아는 마음을 부러워한다.

[1-1] 기가 지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한 발로 경충경충 뛰어다니니 비할 수 없이 간편하오. 지금 그대는 수많은 발을 쓰고 있는데, 어떻소이까?”

지네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소. 당신은 침 뱀는 것을 보지 못했소? 침을 내 뱀으면 큰 놈은 구슬 같고 작은 놈은 안개 같은데, 크고 작은 것이 섞여 떨어지는 그 수는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을 지경이오. 지금 나는 것처럼 타고난 기능을 사용할 따름이라서 왜 그런지는 모르오.”

지네가 뱀에게 말하였다. “나는 많은 발로 다니고 있지만 당신이 발 없는 것만도 못하니 어째서일까요?”

뱀이 말하였다. “타고난 기능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소? 내가 어찌 발을 쓸 수 있겠소?”

[1-2] 뱀이 바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의 척추와 갈비뼈를 움직여 다니고 있으니 발이 있는 것과 비슷하오. 지금 당신은 북쪽 바다에서 횡하니 일어나 남쪽 바다로 횡하니 들어가는데도 발이 달린 것처럼 자취를 남기지 않으니 왜 그런 거요?”

바람이 말하였다. “그렇소. 나는 북쪽 바다에서 횡하니 일어나 남쪽 바다로 들어가지요.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대거나 발길질을 해도 이기지 못하오. 그렇긴 하지만 큰 나무를 꺾고 큰 집을 날려 버는 것은 나밖에 할 수 없소. 그러니 나는 작은 것은 이겨내지 못하면서 큰 것은 이긴다오. 크게 이기는 것은 오직 성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³¹⁾

이 우언에서 발이 하나밖에 없는 기이한 동물인 ‘夔’는 이야기의 화제를 제시하

31) 《莊子》〈秋水〉, “夔憐虺, 虺憐蛇, 蛇憐風, 風憐目, 目憐心. 夔謂虺曰: “吾以一足踰蹕而行, 予無如矣. 今子之使萬足, 獨奈何?” 虺曰: “不然. 子不見夫唾者乎? 噴則大者如珠, 小者如霧, 雜而下者不可勝數也. 今子動吾天機, 而不知其所以然.” 虺謂蛇曰: “吾以衆足行, 而不及子之無足, 何也?” 蛇曰: “夫天機之所動, 何可易邪? 吾安用足哉!” 蛇謂風曰: “予動吾脊脅而行, 則有似也. 今子蓬蓬然起於北海, 蓬蓬然入於南海, 而似無有, 何也?” 風曰: “然, 予蓬蓬然起於北海而入於南海也, 然而指我則勝我, 鱗我亦勝我. 雖然, 夫折大木, 蜚大屋者, 唯我能也, 故以衆小不勝, 爲大勝也. 爲大勝者, 唯聖人能之.” - 王先謙, 劉武, 앞의 책, 591-595쪽.

며 다음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夔의 단순한 부러움은 다리가 하나 밖에 없는 ‘나’의 ‘결핍’으로 인해 생겨난다. 이렇게 시작된 동물과 무생물[靜物]들의 대화는 단순한 감정에서 비롯되어 성인이 갖추고 있는 능력을 언급하는 부분에까지 이른다.

이 이야기의 대화는 서술 주체로서 의인화된 동물과 비인간적 소재가 동물 대 동물 혹은 동물 대 사물의 구도가 반복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대화는 질문자와 답변자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다. 내용은 먼저 질문자는 자신의 부족함에서 생겨난 부러움을 고백한다. 고백 뒤에는 답변자의 이어지는 자신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타고난 기능[天機]에 따를 뿐이라는 상대의 한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뱀의 질문에 대한 바람의 대답으로 의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 바람은 “크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대답을 통해 성인은 바로 자연의 기능을 따르면서도 작은 것뿐만 아니라 큰 것까지 모두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한다. 즉 바람의 이야기는 성인의 경지를 깨닫지 못한 다른 동물들을 풍자하는 한편 성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장자》〈추수〉편에는 개구리와 관련된 동식물우언도 실려 있다. 이 우언은 ‘정저지와(井底之蛙)’라는 성어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이며 〈추수〉편의 夔 이야기와 구성이 유사하다.

[2] 公冶牟가 책상에 기대어 크게 한숨 쉬고는 하늘을 우러러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 홀로 무너진 우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이요? 어느 날 개구리가 동해의 자라에게 말했소. “나는 참 즐겁소! 우물이 위로 뛰어 오르기도 하고 우물 속 깨진 벽돌 안으로 들어가 쉬기도 하지.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양 겨드랑이를 물에 대고 턱은 물위에 받치고는 진흙을 차면 발은 발 등까지밖에 빠지지 않거든. 장구벌레, 게, 올챙이를 보더라도 나랑 같은 이들이 없던걸. 게다가 하나의 우물을 차지하고서 무너진 우물을 지니고 있는 즐거움이란 역시 최고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 당신도 가끔 들어와서 보는 게 어떻소?”

[2-1] 그래서 동해의 자라는 들어가 보려고 왼발을 다 넣지도 않았는데 오른쪽 무릎이 우물에 걸려 버리고 말았소. 그래서 멍멍 멍멍 물러나 개구리에게

바다 이야기를 했소. “천 리의 먼 거리도 바다의 크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천 길의 높이로도 바다의 깊이를 형용하기에는 부족하오. 우 임금 때 십 년 동안 아홉 번 큰 비가 내렸지만 바닷물은 불지 않았고, 탕 임금 때에는 팔 년 동안 일곱 번 가뭄이 들었지만 바닷물은 더 줄지도 않고 불어나지도 않았소. 대개 시간이 오래되어도 변해 가는 것이 없으며 물이 많아지고 적어져도 바닷물이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는 것이 바로 동해의 큰 즐거움인 것이오.”

[2-2] 이에 무너진 우물 속의 개구리는 그 얘기를 듣고 나자 깜짝 놀라서는 멍하니 자신을 잃었소.”³²⁾

[2]의 우언은 서술 주체로서 의인화된 개구리가 자라와 함께 동물 대 동물이라는 대화 구도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구리는 발이 한 쪽 밖에 없는 夔처럼 이야기의 화제를 제시하고 자라와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개구리는 자신이 바라본 세상과 ‘한 개의 좁은 우물을 독점하면서 지배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자라에게 고백한다.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 하던 개구리는 오히려 대화 상대인 자라에 의해 좁은 식견이 들통 난다. 이는 자라의 대답 중 바다가 ‘천 리의 먼 거리도 바다의 크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천 길의 높이로도 바다의 깊이를 형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구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완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우언은 독립적인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의 우언은 公孫龍³³⁾과 魏牟³⁴⁾라는 역사 인물들의 대화로 이루어진 이야기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 다음의 인물들의 대화는 개구리 우언의 서사와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2]의 우언이 가진 풍자성은 [2-3]에서 [2-5]까지 이야기의 서사적 맥락과 함께 파악할 경우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32) 《莊子》〈秋水〉, “公子牟隱机太息, 仰天而笑曰: “子獨不聞夫埳井之鼃乎?” 謂東海之鰲曰: “吾樂與! 出跳梁乎井幹之上, 入休乎缺甃之崖; 赴水則接腋持頤, 蹶泥則沒足滅跗; 還虯蟹與科斗, 莫吾能若也. 且夫擅一壑之水, 而跨時埳井之樂, 此亦至矣, 夫子奚不時來入觀乎!” 東海之鰲左足未入, 而右膝已繫矣. 於是逡巡而卻, 告之海曰: “夫千里之遠, 不足以舉其大; 千仞之高, 不足以極其深. 禹之時 十年九潦, 而水弗爲加益; 湯之時八年七旱, 而崖不爲加損. 夫不爲頃久推移, 不以多少進退者, 此亦東海之大樂也.” 於是埳井之鼃聞之, 適適然驚, 規規然自失也.” - 王先謙, 劉武, 위의 책, 598쪽.

33) 戰國時期 趙나라 사람으로 名家에 속하는 魏牟론자이다. 장자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다고 전해진다.

34) 戰國時期 魏나라 사람이다. 中山國의 王子였기 때문에 中山公子牟라고 불렸다.

[2-3] 공손룡이 위모에게 물었다. “나는 어릴 적 선조들의 도를 배웠고, 자라서는 仁과 義의 행동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같고 다른 것들은 합쳐 논하고, 둘에는 단단함과 흰 것이 분리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그러하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을 곤란하게 만들었고 여러 사람들의 쟁론들을 궁지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지극히 통달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장자의 말을 듣고 나서 명한 것이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내 이론이 장자의 이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내 지혜가 장자의 지혜만 못한 것일까요? 지금 나는 내 입을 열 수 없어 감히 그의 도가 어떠한지 여쭙습니다.”...(중략)...

[2-4] ...(중략)“...게다가 당신의 지혜는 옳고 그름의 지경도 알지 못하는데 장자의 말을 이해하려 하고 있소. 이는 마치 모기가 산을 뚫어지게 만들고, 노래기[商距]가 황하를 건너게 만드는 것과 같으니 필히 받아들이지 못할 거요. 그리고 지혜가 극히 오묘한 말을 논할 정도가 아닌데도 스스로 잠깐의 이익을 쫓는 것은 무너진 우물 속의 개구리와 같지 않소? 게다가 장자는 황천을 밟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남쪽도 없고 북쪽도 없으니 왕성하게 사방으로 퍼져 헤아릴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으며 동쪽도 없고 서쪽도 없이 아득한 우주의 근본 원리에서 시작하여 大道로 돌아와 있소. 그대는 도리어 멍하니 관찰하여 구하려 하고 변론을 통해 추구하려 하는데 이것은 대롱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송곳으로 땅을 가리키는 격이니 얼마나 작은 견해요! 그대는 돌아가시오. 또한 당신은 홀로 壽陵의 애송이가 邯鄲에 가서 걸음걸이를 배웠던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이오? 그런데 수릉의 애송이는 한단의 걸음걸이를 배우기도 전에 옛날 걸음걸이도 잃어 버렸소. 그래서 그는 기어서 돌아오게 되었소. 지금 그대가 가지 않으면 그대는 장차 옛 마음을 잊게 될 것이며, 옛 직업도 잃을 것이오.”

[2-5] 공손룡은 이 말을 듣고서 입이 닫히지 않았고, 혀는 말려 올라가서는 내려오지 않았으며 이윽고 몸을 빼어 달아나게 되었다.³⁵⁾

35) 《莊子》〈秋水〉, “公孫龍問於魏牟曰: ‘龍少學先生之道, 長而明仁義之行; 合同異, 雜堅白, 然不然, 可不可; 困百家之知, 窮衆口之辯, 吾自以爲至達已. 今吾聞莊子之言, 沆焉異之. 不知論之不及與, 知之弗若與? 今吾無所開吾喙, 敢問其方.’”(中略)“...且夫知不知是非之竟, 而猶欲觀於莊子之言, 是猶使蚊負山, 商距馳河也, 必不勝任矣. 且夫知不知論極妙之言而自適一時之利者, 是非埴井之蠹與? 且彼方趾黃泉而登大皇, 無南無北, 夷然四解, 淪於不測; 無東無西, 始於玄冥, 反於大通. 子乃規規然而求之以察, 索之以辯, 是直用管闚天, 用錐指地也, 不亦小乎! 子往矣! 且子獨不聞夫壽陵餘子之學行於邯鄲與? 未得國能, 又失其故行矣, 直匍匐

장자는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이야기를 반복함으로써 서사가 지닌 풍자성을 강조한다. [2-3]에 나오는 공손룡의 물음과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는 서사 방식은 개구리의 고백에 대입할 수 있으며, [2-4]에 나타나는 위모의 대답은 개구리의 고백에 대한 자라의 답변과 유사하다. 위모는 공손룡에게 ‘지혜는 극히 오묘한 말을 논할 만큼 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일시적인 이익이나 추구하는 것은 무너진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다.’라고 대답한다.

장자가 우물 안의 개구리를 서술 주체로 설정하여 주제로 활용한 것은 〈逍遙遊〉에서 나타나는 태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장자는 〈소요유〉에서 ‘자기중심적 삶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우주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인간 존재를 재인식’³⁶⁾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상상의 동물로 설정된 거대한 물고기 鯢과 큰 새인 鵬을 묘사하면서 동물들이 활동한 드넓은 공간도 함께 그려낸 것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묘사를 통해 이 우연 속의 공간은 실제의 공간과는 다른 환상성을 가지게 되며, 인간이 자신들의 사유를 초월한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 때야 말로 비로소 진정한 자유에서 소요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1.2 대비적 서사를 통한 의식표출

《장자》의 동식물우연은 의인법을 활용할 경우 대비적 서사를 통해 의식을 표출한다. 먼저 〈소요유〉편에 실려 있으며 가장 처음 등장하는 우연을 살펴보겠다.

[3] 北冥에는 고기[魚]가 있는데 그 고기의 이름은 鯢이라고 한다. 곤의 길이는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곤이 변하여 새가 되면 그 이름을 鵬이라고 한다. 봉의 등은 그 길이가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봉이 떨치고 날아오르게 되면 그 날개는 하늘에 드리워진 구름과도 같다. 이 새는 센 바람이 바다 위에 불게 되면 비로소 南冥으로 옮겨갈 수 있다. 남명은 하늘의 연

而歸耳。今子不去，將忘子之故，失子之業。公孫龍口呿而不合，舌舉而不下，乃逸而走。” - 王先謙，劉武， 앞의 책， 601-603쪽.

36) 진고웅, 최진석 옮김, 《老莊新論: 노자 장자철학의 새로운 이해》, 1997, 214쪽.

못이다.

[3-1] 《齊諧》라는 책은 괴이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제해》의 기록에는 “붕이 남명으로 옮겨갈 적에 물을 치는 것이 삼천리이고 빙빙 돌아 회오리바람을 타면 구만리나 올라가며, 육 개월을 날아가서야 쉬게 된다.”고 하였다.³⁷⁾

[3-2] 매미와 작은 새가 비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푸드득 날아 느릅나무 가지에 이르러 머무는데, 가끔은 나뭇가지에도 이르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하지. 그러니 어째서 구만리나 날아 남쪽까지 가겠나?”

[3-3] 가까운 교외로 간 사람은 밥을 세 끼나 먹고 돌아오더라도 배가 그대로 부를 것이다. 그러나 백 리 길을 가는 사람은 전날 밤에 양식을 절구에 찼어둔다. 그리고 천 리 길을 가려는 사람은 석 달 동안 양식을 모아둔다. 그러니 이 두 벌레들이 또 무엇을 알겠는가?³⁸⁾

장자는 의인법이 활용된 우언에서 침묵과 담화라는 대비적 특징을 가진 서사의 활용을 통해 내용을 구성한다. 〈소요유〉의 가장 첫 머리에 등장하는 우언인 봉새와 거대한 물고기 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하다. 먼저 봉새와 곤이 등장하는 부분인 [3]은 동물의 특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된다. 반면 매미와 작은 새[學鳩]는 의인화 되어 말하는 존재이며 봉과 곤을 비웃는 대비적인 성격을 가진 동물로 설정되었다.

〈외물〉에 실려 있는 혜시와 장자의 이야기는 봉새와 곤의 침묵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혜시와 장자는 말[言]의 쓰임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장자는 ‘그대의 말은 쓸데가 없다[子言無用]’는 혜시의 주장에 “말의 쓸데없음을 알아야 비로소 말의 쓰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이것은 ‘말의 쓰임이 임시적임을 깨달으면 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다음에서야 無言의 방식으

37) 《莊子》〈逍遙遊〉, “北冥有魚, 其名為鯢. 鯢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為鳥, 其名為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 則將徙於南冥. 南冥者, 天池也. 齊諧者, 志怪者也. 諧之言曰: “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 野馬也, 塵埃也, 生物之以息相吹也. 天之蒼蒼, 其正色邪? 其遠而無所至極邪? 其視下也, 亦若是則已矣.” - 王先謙, 劉武, 앞의 책, 24쪽.

38) 《莊子》〈逍遙遊〉, “蜩與學鳩笑之曰: “我決起而飛, [搶]榆枋, 時則不至而控於地而已矣, 奚以之九萬里而南爲?” 適莽蒼者, 三飡而反, 腹猶果然; 適百里者, 宿春糧; 適千里者, 三月聚糧. 之二蟲又何知!” - 王先謙, 劉武, 위의 책, 8쪽.

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³⁹⁾과 같다. 장자는 〈우언〉편에서 ‘無言을 말하게 되면 평생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여전히 많은 말을 한 것이다.’⁴⁰⁾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판단해보면 장자는 봉새와 곤의 침묵을 통해 발생하는 아이러니를 서사에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3]의 이야기에서 봉새와 곤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작은 동물인 매미와 작은 새는 의인화 되어 말을 한다. 그러나 무언의 방식을 통해 살펴보면 실제로 곤과 봉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말을 한 것이라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따라서 동물들은 이러한 상황에 따라 말[言]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이다.

이 우언의 뒤에 이어지는 冥靈과 大椿이라는 상상의 나무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게 사는 것은 오래 사는 것들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그러함을 알게 되는가? 아침에 자라서 저녁에 시드는 버섯은 저녁과 아침을 알지 못하고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하는 데, 이것들은 짧게 사는 것들이다. 楚나라의 남쪽에 冥靈이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오백 년을 봄으로 삼고 오백 년을 가을로 삼는다. 태고 적에는 大椿이란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팔천 년을 봄으로 삼고 팔천 년을 가을로 삼았다. 그리고 彭祖는 지금까지도 특히 오래 산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니 사람들은 그에게 자신의 목숨을 견주려 하면 역시 슬프지 않겠는가.⁴¹⁾

[4]의 이야기에서 인간은 1년이라는 기간에 속해 있는 네 가지의 계절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동식물우언 속의 명령이라는 나무와 대춘이라는 나무가 생장하는 기간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우언 속의 명령이라는 나무가 봄으로 삼는 기간은 오백 년이며 가을로 삼는

39) 짱 룽시 지음, 백승도·서은숙·조미원·최정섭 역, 《도와 로고스》, 1997, 78쪽.

40) 《莊子》〈寓言〉, “言無言, 終身言, 未嘗言; 終身不言, 未嘗不言.” - 王先謙, 劉武, 앞의 책, 246쪽.

41) 《莊子》〈逍遙遊〉, “小知不及大知, 小年不及大年. 奚以知其然也? 朝菌不知晦朔, 蟪蛄不知春秋, 此小年也. 楚之南有冥靈者, 以五百歲爲春, 五百歲爲秋; 上古有大椿者, 以八千歲爲春, 八千歲爲秋. 而彭祖乃今以久特聞, 衆人匹之, 不亦悲乎.” - 王先謙, 劉武, 앞의 책, 11쪽.

긴 시간 역시 오백 년이다. 또 대춘이라는 나무도 마찬가지로이다. 이 나무의 봄은 팔천 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며 가을 역시도 팔천 년이라는 긴 시간이다. 따라서 이 동식물우언에서도 두 나무는 자신이 포함된 세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처럼 그려진다. 서사의 전반부에 나무의 특징이 서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무는 사실 담화로써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다시 말해 침묵하고 있지만 사실은 침묵하지 않는다는 아이러니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장자는 이와 같은 서사 방식을 활용하여 우언을 구성함으로써 제한적인 인간의 사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월적인 사유에서 소요할 것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3 사유의 충돌과 융합

《장자》에 실린 동식물우언에서 동물들이 의인화 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이야기가 서술 주체의 일방적 고백으로 마무리 된다. 이 때 동식물우언은 서술 주체의 이야기를 들은 대화 상대의 다음 행동이 드러나지 않은 채 이야기가 끝난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서사의 구성은 마치 이야기에서 설정된 화자와 청자의 사유가 융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소요유〉편에 있는 곤과 붕이 등장하는 동식물우언과 〈외물〉편에 포함된 수레바퀴 자국 가운데 있는 붕어 우언이 바로 그 예이다. 먼저 곤과 붕의 동식물우언을 살펴보도록 한다.

[5] 湯 임금의 棘에게 물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했다. 窮髮의 북쪽에는 冥海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것이 天池이다. 거기에는 물고기가 사는데 그 물고기의 너비는 수천 리가 되고 그 길이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곤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거기에 사는 새는 붕이라고 하는데 등이 태산 같고 날개는 마치 하늘에 드리워진 구름과도 같았다. 빙빙 회오리바람을 타고 돌면서 오르기를 구만 리나 하는데 구름의 기운이 끊어지는 높이에서 푸른 하늘을 등지고 그 후에 남쪽으로 향하는데 南冥으로 가려는 것이다.

[5-1] 작은 연못의 작은 새인 鵲이 그것을 비웃으며 말했다. “저 새는 또 어

디로 가는 거지? 나는 펄쩍 날아 오르면 얼마 못 올라가서 떨어지고 쑥대 사이를 오락가락하는데, 이것 역시도 날아다니는 극치인 걸. 그런데 저 새는 어디로 가려는 것이지?” 이것이 작은 것과 큰 것이 분별되는 것이다.⁴²⁾

이 동식물우언은 작은 연못에 살고 있는 鵩이라는 새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이것이 작은 것과 큰 것의 분별인 것이다.’라는 의론과 함께 마무리 된다. 즉 鵩은 봉과 곤이라는 두 상상 속 동물의 행위를 비웃음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출한다. 그러나 이 우언의 말미에는 새의 생각을 듣고 난 뒤 봉과 곤의 반응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음은 <외물>편의 봉어 이야기이다. 이 동식물우언 역시 비슷한 구조로 이야기가 마무리 된다.

[6] 莊周가 집이 가난하여 藍河候에게 곡식을 빌리러 갔다. 감하후가 말했다. “알겠소. 그렇다면 내 영지의 세금을 거둔 후에 선생께 삼 백금을 빌려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6-1] 莊周는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며 말했다. “제가 어제 이곳으로 오는데 길에서 저를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수레바퀴 자국 속에 봉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봉어에게 물었지요. “봉어야! 너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봉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東海에 속해있는 신하입니다. 선생께서 한 말이나 몇 되의 물이 있다면 제게 부어서 살려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남쪽으로 가서 오나라와 월나라의 임금을 설복시켜 西江의 물을 받아다가 너를 맞이하도록 하겠다. 괜찮겠느냐?” 그러자 봉어는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늘 필요한 물이 없어서 당장 있을 곳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한 말이나 몇 되의 물만 있으면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건어물전에서 일찍이 저를 찾는 편만 못합니다!” ”⁴³⁾

42) 《莊子》〈逍遙遊〉, “湯之問棘也是已. 窮髮之北有冥海者, 天池也. 有魚焉, 其廣數千里, 未有知其修者, 其名爲鯢. 有鳥焉, 其名爲鵬, 背若泰山, 翼若垂天之雲, 搏扶搖羊角而上者九萬里, 絕雲氣, 負青天, 然後圖南, 且適南冥也. 斥鴳笑之曰: “彼且奚適也? 我騰躍而上, 不過數仞而下, 翱翔蓬蒿之間, 此亦飛之至也. 而彼且奚適也?” 此小大之辯也.” - 王先謙, 劉武, 앞의 책, 14쪽.

이 우언에서 봉어는 의인화되어 장자라는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이자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서술 주체로 설정되었다. [6-1]의 이야기는 장자와 봉어의 대화로 전개되지만 성난 봉어의 대답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즉 봉어의 대화 상대인 장자의 반응은 제시 되지 않고 이야기가 결론지어진 것이다.

《장자》〈제물론(齊物論)〉의 원숭이와 원숭이를 키우는 주인의 이야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朝三暮四라는 成語의 유래가 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정신과 마음을 하나로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그 같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바로 아침에 세 개[朝三]라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아침에 세 개[朝三]라고 하는가? 원숭이를 기르던 사람이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말했다.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朝三暮四] 주겠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냈다. 그러니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다시 말했다. “그러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 주겠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명분이나 사실에서 달라진 것이 없지만 기뻐하고 화내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역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성인은 시비를 조화롭게 만들어 균형 잡힌 자연에서 몸을 쉬는데, 이것을 일컬어 ‘자기와 밖의 만물이라는 양편에 다 통하는 것’이라고 한다.⁴⁴⁾

《장자》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 중에서 의인화된 이야기만을 독립적으로 따로 분리하여 분석할 경우 동물들이 일방적으로 사유를 전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와 같은 서사의 구성은 이야기에서 설정된 화자와 청자의 사유가 대화라는 매개를 거쳐 종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그러나 겉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43) 《莊子》〈外物〉, “莊周家貧, 故往貸粟於監河侯. 監河侯曰: “諾. 我將得邑金, 將貸子三百金, 可乎?” 莊周忿然作色曰: “周昨來, 有中道而呼者. 周顧視車轍中, 有鮒魚焉. 周問之曰: “鮒魚來! 子何爲者邪?” 對曰: “我, 東海之波臣也. 君豈有斗升之水而活我哉?” 周曰: “諾. 我且南遊吳越之王, 激西江之水而迎子, 可乎?” 鮒魚忿然作色曰: “吾失我常與, 我無所處. 吾得斗升之水然活耳, 君乃言此, 曾不如早索我於枯魚之肆!”” - 王先謙, 劉武, 위의 책, 924쪽.

44) 《莊子》〈齊物論〉, “勞神明爲一而不知其同也, 謂之朝三. 何謂朝三? 狙公賦茅, 曰: “朝三而暮四,” 衆狙皆怒. 曰: “然則朝四而暮三,” 衆狙皆悅. 名實未虧而喜怒爲用, 亦因是也. 是以聖人和之以是非而休乎天鈞, 是之謂兩行.” - 王先謙, 劉武, 위의 책, 70쪽.

보이는 이 이야기들은 사실 융합되고 있다고 하겠다. 백승도가 〈내편〉의 편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거대한 회귀—원의 구조를 그리는 전체구조’⁴⁵⁾라고 설명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道를 말하기 위한 형상적 구조들이 충돌하는 사유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 것이다.

장자는 역설과 환상성 그리고 허구성을 가진 글을 활용하여 자신의 사유를 드러냈다. 다시 말해 장자는 우언의 글쓰기를 통해 문면 상으로는 사유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장자》의 전반적인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바라본다면 이 이야기들은 사실 융합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제 2 절 《韓非子》의 동식물우언

《韓非子》에 실려 있는 우언 서사물은 약 300편이며 〈儲說〉에 실린 비중이 가장 많고 〈說林〉, 〈喻老〉, 〈十過〉 등에 나머지 우언들이 있다. 〈저설〉은 ‘이야기들을 모아둔 것’이라는 의미로 다량의 우언이 집적되어 있고 편목 자체가 개별적으로 체계적인 구성⁴⁶⁾을 이루고 있다. 〈세림〉은 ‘말로 자신의 설명을 듣도록 하다.’⁴⁷⁾라는 뜻이며 독립적인 우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세림〉 그 자체만 독립적으로 분리시켜 볼 경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한비자》의 체계적 구성은 당시 한비자의 논리적인 사유와 관련⁴⁸⁾ 있다고 판단된다.

45) 백승도는 이와 같은 회귀의 전개가 앞의 내용을 뒤집으면서 이어받기를 시도하는 ‘전복’과 ‘반복’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백승도, 〈『莊子』에서 ‘도’는 어떻게 말해지고 있는가?: ‘扞言’을 통해 본 「內篇」의 구조〉, 222-223쪽을 참고.

46) 진포청은 《한비자》의 〈저설〉이 각각 대우언군, 중우언군, 소우언군이라는 체계적인 체제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내저설상〉은 〈저설〉이라는 대우언군을 이루는 하나의 중우언군으로써 49개의 우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중우언군은 각각 군주가 신하를 통치하는 방법인 ‘칠술(七術)’에 따라 일곱 개의 소우언군으로 나뉘었다고 하였다. (진포청, 오수형 옮김, 앞의 책 82-83쪽)

47) 《史記》〈索隱〉, “說林者, 廣說諸事, 其多若林, 故曰說林也”

48) 김원중은 한비의 논리적인 사유가 한비자 전체 문장의 풍격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김원중, 《韓非子》를 통해서 본 韓非子의 글쓰기 전략에 관한 몇 가지 검토

《한비자》의 동식물우언은 동물을 활용한 것들로 이루어져있으며 그 수량은 5則으로 확인되었다. 총 5則의 동식물우언 중에서 의인법을 사용한 우언은 2則이다.⁴⁹⁾ 《한비자》에서 의인법을 활용한 동식물우언에 대한 서사적 특성을 표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 의인법을 활용한 《韓非子》 동식물우언 서사 특성 분석

《韓非子》	상상 속 동식물	실제 동식물	소재	제재	서술 주체	
					소재	주제
〈說林 上〉 涸澤之蛇	大蛇 小蛇	-	蛇	-	-	小蛇
〈說林 下〉 三蟲爭訟	三蟲 一蟲	-	蟲	-	-	一蟲

물론 《한비자》에서 식물은 비유의 수법으로 활용된 경우는 있지만 우언의 소재 또는 제재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한비자》에서는 동물만이 우언의 소재 혹은 제재로 쓰였다고 하겠다. 《한비자》에 포함된 동식물우언 중에서 동물이 의인화되어 서술 주체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장자》에 포함된 우물 속 개구리[井底之蛙] 이야기와 비슷한 서사 구조를 가진다. 두 마리의 동물이 이야기에 등장하며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다만 《한비자》의 우언은 《장자》와 유사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해나간다. 따라서 《장자》의 동식물우언과는 차이점을 가지게 된다.

토), 99쪽을 참고할 것.

49) 《韓非子》에서 의인법이 활용된 동식물우언은 다음과 같다. 《한비자》에는 총 2則으로 〈說林 上〉의 학택의 뱀[涸澤之蛇] 이야기, 〈說林 下〉의 세 마리 이의 다툼[三蟲爭訟] 이야기가 실려 있다.

2.1 은밀한 설득의 방식

《한비자》의 동식물우언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동물이 의인화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때 서술 주체로 설정된 동물은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입장이 된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세림〉편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의 한 예를 살펴보자.

[8] …子皮가 말했다. “그대는 유독 涸澤의 뱀 이야기를 듣지 못하십니까?” 못에 물이 마르자 뱀이 앞으로 옮겨 가려고 했는데 어떤 작은 뱀이 큰 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먼저 옮겨 가고 제가 그대의 뒤를 따르면, 사람들은 그저 뱀이 지나갈 뿐이라고 생각하여 틀림없이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서로 물고 나를 등에 업고 가는 것만 못한테, 이렇게 가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우리를 신령한 뱀이라 여길 것입니다” 이윽고 두 마리의 뱀은 서로를 물고서 등에 업고 큰 길을 건넌더니 사람들이 모두 피하면서 말했습니다. “신령님이다.”⁵⁰⁾

[8]의 우언에서 작은 뱀은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상대를 설득하여 바라고자 하는 바를 얻는다. 이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작은 뱀이 큰 뱀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작은 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여 이야기한 후 그 일이 벌어질 경우 입게 될 화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는 화를 입지 않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설득을 위한 이야기를 들은 상대의 동의와 함께 작은 뱀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루게 되는 부분이다.

이 동식물우언과 《장자》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들을 비교해 본다면 유사한 형태의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사구조가 유사한 우언으로는 〈제물론〉의 곤과 붕이 나오는 우언, 〈추수〉편의 우물 속 개구리[井底之蛙]가 있다. 《장

50) 《韓非子》〈說林〉上, “…子皮曰: “子獨不聞涸澤之蛇乎? 澤涸, 蛇將徙, 有小蛇謂大蛇曰: “子行而我隨之, 人以爲蛇之行者耳, 必有殺子者. 子不如相銜負我以行, 人必以我爲神君也.” 乃相銜負以越公道而行, 人皆避之, 曰: “神君也.”… - 王先慎, 《韓非子集解》, 174쪽.

자》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들에서는 이야기의 전반부에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도록 설정된 두 마리의 동물이 먼저 소개된다. 그 후 주인공의 성격을 가진 동물이 설정되고 이야기를 이끌어어나가는 구조를 가진다.

물론 《장자》의 동식물우언과 《한비자》 동식물우언의 구조상의 측면에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澤潤의 뱀 이야기는 서술 주체로 설정된 작은 뱀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다시 말해 두 마리의 뱀이 우언 속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바로 작은 뱀 한 마리뿐이라는 것이다.

이 동식물우언은 사마천의 《사기》(老子韓非列傳)에서 한비가 〈세림〉이라는 편을 짓게 된 이유를 참고하여 그 우의를 파악해볼 수 있다. 사마천은 한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청렴하고 결백한 인물들이 간악한 신하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못함을 슬퍼하고, 이전의 성공과 실패의 변화를 살펴 고분, 오두, 내저설, 외저설, 세림, 세난 등의 10여 편을 지었다.’⁵¹⁾라고 하였다. 법가의 이상향에서 군주는 法과 術이라는 기제를 통해 사회를 통제한다. 그러므로 한비는 청렴결백한 인물들이 군주에게 제대로 유세할 수 있도록 ‘처세술 교과서’를 마련해준 셈이다. 즉 한비는 이와 같은 우언의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하고자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설득의 방법을 활용하는 방식을 우언이라는 우회적 글쓰기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유세의 방법을 알려주고자 했다고 할 수 있겠다.

2.2 서사 내 설득 대상의 교화

《장자》의 동식물우언은 의인법을 활용할 경우 이야기 속의 서술 주체들의 주장을 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된다. 즉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의 반응이 묘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와 달리 《한비자》의 동식물우언은 서사의 말미에 설득 대상이 교화 되는 구성 방식을 취한다. 예시가 되는 동식물우언은 다음과 같다.

51) 《史記》(老子韓非列傳), “悲廉直不容於邪枉之臣, 觀往者得失之變, 故作孤憤、五蠹、內外儲、說林、說難十餘萬言”

[9] 鷗夷子皮는 田成子를 섬겼다. 전성자가 제나라에서 달아나 연나라로 가자 치이자피는 여권[傳]을 지니고 그를 따라나섰다. 망음에 이르자 자피는 이렇게 말하였다.

[9-1] 子皮가 말했다. “그대는 유독 涸澤의 뱀 이야기를 듣지 못하십니까?” 못에 물이 마르자 뱀이 앞으로 옮겨 가려고 했는데 어떤 작은 뱀이 큰 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먼저 옮겨 가고 제가 그대의 뒤를 따르면, 사람들은 그저 뱀이 지나갈 뿐이라고 생각하여 틀림없이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서로 물고 나를 등에 업고 가는 것만 못하는데, 이렇게 가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우리를 신령한 뱀이라 여길 것입니다” 이윽고 두 마리의 뱀은 서로를 물고서 등에 업고 큰 길을 건넌더니 사람들이 모두 피하면서 말했습니다. “신령님이다”

[9-2] 지금 그대는 멋지지만 나는 추악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대를 상객으로 삼으면 나는 천승의 군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를 사신으로 삼는다면 저는 만승의 경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대가 나의 사인이 되는 것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성자는 여권을 지니고 그를 수행하였다. 두 사람이 숙소에 이르자 숙소 주인이 그들을 아주 정중히 대접했으며 술과 고기까지 바쳤다.⁵²⁾

[9]에서 [9-2] 이야기는 액자식 구성과 같이 바깥 이야기가 동식물우언을 포함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이에 따라 뱀을 서술 주체로 활용한 동식물우언을 중심의 이야기 하나와 鷗夷子皮⁵³⁾, 田成子⁵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로 구분

52) 《韓非子》〈說林〉上, “鷗夷子皮事田成子, 田成子去齊, 走而之燕, 鷗夷子皮負傳而從, 至望邑, 子皮曰: “子獨不聞涸澤之蛇乎? 澤涸, 蛇將徙, 有小蛇謂大蛇曰: “子行而我隨之, 人以為蛇之行者耳, 必有殺子者. 子不如相銜負我以行, 人必以我為神君也.” 乃相銜負以越公道而行, 人皆避之, 曰: “神君也.” 今子美而我惡, 以子為我上客, 千乘之君也; 以子為我使者, 萬乘之卿也. 子不如為我舍人. 田成子因負傳而隨之, 至逆旅, 逆旅之君待之甚敬, 因獻酒肉.” - 王先慎, 《韓非子集解》, 앞의 책, 174쪽.

53) 鷗夷子皮는 田成子が 군주인 簡公을 살해하고 齊나라를 찬탈할 때 함께 가담한 인물이다. ‘鷗夷子皮’라는 이름을 삼은 사람은 춘추 말엽에 총 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한 명은 楚나라 현인이며 다른 한 명은 齊나라 姦商으로 《한비자》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나머지 한 명은 越나라 사람인 范蠡가 越을 떠나 陶로 갈 때 이름을 鷗夷子皮라고 바꿨다고 한다. (韓非, 임동석 역, 《한비자》 2, 778쪽 참고)

54) 田恆. 시호는 成이고 簡公을 유폐시키고 시해한 인물이다. 원래 그의 선조인 陳完은 陳나라 출신으로 齊나라 출신으로 齊나라에 옮겨와 정착하여 田氏로 성을 바꿔 卿의 자리에까

가능하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설득 상대가 교화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서사 구조 역시 유사한데 설득을 통해 이끌어낸 상대의 변화된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가 이야기 속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먼저 두 마리의 뱀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의 서술 주체는 작은 뱀으로 큰 뱀을 설득시키는 역할이 주어진다. 작은 뱀은 서로를 물고 자신이 큰 뱀의 위에 올라타는 것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말을 들을 경우 큰 뱀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큰 뱀은 작은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되며 작은 뱀을 등에 업고 돌아다닌다. 우언의 말미에는 큰 뱀이 작은 뱀의 말을 듣고 따르자 결국 사람들에게 신성하게 여겨짐으로써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되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 동식물우언은 유사한 구조로 구성된 바깥 이야기와 함께 분석할 경우 더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다. 치이자피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뱀 이야기를 활용하여 전성자를 설득시킨다. 전성자는 학택의 뱀 우언에서 등장하는 큰 뱀에 대입할 수 있으며 치이자피는 작은 뱀에 대입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말미에 전성자가 치이자피를 수행하자 숙소의 주인이 대접을 극진히 한 것은 뱀 두 마리가 사람들에게 신성하게 여겨진 것과 같다.

여기서 뱀 두 마리가 등장하는 [8-1]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상황에 빚댄 이야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하고자하는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설득의 대상을 교화시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비자》에서 의인법을 활용한 동식물우언 중 다른 이야기 역시 〈세림〉편에 실려 있다. 이 우언에는 의인화 된 네 마리의 이[蝮]가 등장하여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10] 이 세 마리가 돼지를 먹는데 서로 다투고 있었다. 그곳을 지나던 다른 이 한 마리가 말했다. “무슨 말을 했기에 그렇게 다투고 있는 거요?” 이 세 마리가 말했다. “살이 오른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것이지요.” 다른 한 마리 이가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납제가 다가와서 띠 풀에 불살라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

지 올랐다. 그 후손들은 이후에 齊나라를 차지하여 전국시대 田氏齊를 세웠다. (韓非, 임동석 역, 위의 책, 778쪽 참고)

는다면 또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이 때문에 이육고 세 마리 이는 함께 모여서 어미 돼지를 먹었다. 돼지가 비쩍 마르자 사람들이 그 돼지를 죽이지 않았다.⁵⁵⁾

[10]의 우언에서 한비는 의인화된 네 마리의 이[蠹]들이 각자 말을 할 수 있게 설정되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대화라는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드러낸다. 이 동물들은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다투기만 하던 세 마리의 이가 한 부류이다. 두 번째는 위험에 대해 충고해주는 한 마리의 이가 포함된 부류이다. 세 번째는 충고를 듣고 행동을 고쳐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된 세 마리의 이이다. 이처럼 한비는 서사 속에 등장하는 설득 대상을 교화시키고 그 이후 변화된 행동까지도 포함시켜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말로 자신의 설명을 듣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림>이라는 편목을 떠올려 볼 때 이와 같은 서사 방식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설득하려는 대상이 충고하는 자의 말을 들었을 경우 화를 입는 것을 피할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동식물우언의 우의는 같은 <세림>편에 나오는 蝮라는 파충류에 대한 이야기와 《장자》〈徐無鬼〉편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참고하여 함께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고대 전설 속 파충류인 蝮의 이야기를 보자.

파충류 중에는 회(蝮)라는 것이 있다. 회는 몸은 하나인데 입은 두 개 달려 있어서 서로 먹을 것을 두고 다투다가 서로 물어뜯어 결국에는 죽어버린다. 신하들이 정권을 두고 다투어 나라를 망치는 것도 모두 회와 같은 부류이다.⁵⁶⁾

이 이야기는 동식물우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야기의 구성이 ‘서로 먹

55) 《韓非子》〈說林〉下, “三蟲食屍, 相與訟, 一蟲過之, 曰: “訟者奚說?” 三蟲曰: “爭肥饒之地.” 一蟲曰: “若亦不患臘之至而茅之燥耳, 若又奚患?” 於是乃相與聚嘊其母而食之. 屍羶, 人乃弗殺.” - 王先慎, 《韓非子集解》, 앞의 책, 189쪽.

56) 《韓非子》〈說林〉下, “蟲有蝮者, 一身兩口, 爭食相齧, 遂相殺也. 人臣之爭事而亡其國者, 皆蝮類也.” - 王先慎, 《韓非子集解》, 앞의 책, 189쪽.

이를 두고 다투’, ‘서로 죽음에 이르게 됨’이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네 마리의 이가 등장하는 우언과 내용상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네 마리의 이가 등장하는 우언을 해석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회는 고대 전설 속의 뱀인 휘(虺)와 같은데⁵⁷⁾ 이 뱀은 서로 같은 몸에 달려 있음에도 먹이를 보고 다투다 결국 죽어버리는 어리석은 동물이다. 한비는 이 동물이 마치 정권을 가지고 다투는 신하들과 같은 종류라고 보았다. 즉 한비는 앞에서 언급한 네 마리의 이를 활용한 이야기를 통해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충고를, 유세를 통해 정치하게 될 사람들에게는 처세술에 대해 알려주고자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장자》의 〈서무귀〉편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한다면 네 마리 이 우언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1] 일시적인 안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돼지 몸에 붙어사는 이[豕虱]와 같은 자들이다. 이[豕虱]는 털이 길게 자란 곳을 고르고서는 스스로 넓은 궁전의 광대한 정원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말굽 모퉁이나 사타구니 사이 또는 유방 사이나 넓적다리 사이를 골라서는 스스로 안락한 방이나 편한 장소라고 여긴다. 그러나 만일 한 번 도살자가 팔을 휘둘러 돼지를 잡아서 마른 풀을 깔고 불을 붙이면 자기도 돼지와 함께 타 버릴 것을 알지 못한다. 이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한다. 따라서 그들을 소위 일시적인 안락을 추구한다는 뜻의 유수(濡需)라고 부르는 것이다.⁵⁸⁾

장자는 잠깐의 안락을 누리려는 자들을 돼지 몸에 붙어 있는 이[豕虱]에 비유하여 주장을 전달한다. 잠깐의 편안함을 위하는 자들은 좁디좁은 장소를 골라 편안하게 여기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의 눈앞에 닥친 위험은 인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험이 닥쳤을 때 일시적인 편안함만을 생각하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이

57) 韓非, 임동석 옮김, 앞의 책, 861쪽.

58) “濡需者, 豕虱是也. 擇疏鬣, 自以爲廣宮大囿, 奎蹄曲隈, 乳間股脚, 自以爲安室利處, 不知屠者之一旦鼓臂、布草、操煙火, 而已與豕俱焦也. 此以域進, 此以域退, 此其所謂濡需者也.” - 莊子, 《莊子集解》, 214쪽.

다. 즉 〈서무귀〉의 이[蠹]와 〈세림〉편에 등장하는 세 마리 이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게 된다. 하나는 같은 종류의 동물이라는 것이다. 이 동물들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몸에 붙어 피를 빨아먹으며 생존한다. 이[蠹]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다.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앞에 닥쳐있는 위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동물로 묘사되었다는 것이다. 〈서무귀〉의 이[蠹]는 동물의 사타구니나 말굽 사이에 붙어서 편안하다고 여긴다. 도살자가 자신이 붙어사는 동물을 죽여 불태우려고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다. 〈세림〉에서 등장하는 세 마리의 이는 자신들이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놓고 정신없이 다툼으로 인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다. 지나가던 다른 한 마리의 이[一蠹]가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언짢게 준 후에야 위험을 감지할 뿐이다.

한비는 〈서무귀〉에 나오는 성격과 유사한 이[蠹]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이 두 이야기에는 두 가지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하나는 바로 《장자》에 나오는 이[蠹]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한비자》의 이[蠹]는 의인법을 활용하여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한비는 사건의 서술로만 이루어져 있던 내용을 살아 있는 동물들의 대화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묘사해 냈다. 이와 같은 수사 방식은 자신이 하고자하는 주장과 어울리는 내용으로 서사를 통일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차이점은 한 마리 이[一蠹]를 통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대상을 일깨운 것이다. 세 마리 이[三蠹]는 서로의 이익을 다투느라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지나가던 다른 이[蠹]의 말을 듣고서 싸움을 그만두고 함께 모여 일을 하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비는 살펴본 바와 같이 의인법을 활용한 동식물우언을 쓸 때 식물이 아닌 동물을 소재 또는 제재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은 법가 사상이 추상적 관념보다는 정교한 제도 장치처럼 인위적인 것을 중시⁵⁹⁾했다는 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 인위적인 제도에 따라 실현된다고 생각한 법가 사

59) 벤자민 슈워츠는 법가 사상이 노자의 원시주의와는 정반대로 법가 사회·정치적 질서라는 정교한 제도 장치를 통해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 실현될 것이라고 보았다. 벤자민 슈워츠, 나성 옮김, 《중국 고대 사상의 세계》, 524쪽.

상의 측면에서 볼 때 한비는 움직임 없는 식물보다는 동물이 가지는 행동력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한비자는 행동력을 가진 동물들을 인간화시켜 우언을 지은 것이라고 판단된다.⁶⁰⁾

제 3 절 예증으로 활용된 경우

의인화 된 동물들이 등장한 동식물우언은 다른 이야기 속의 예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우물 속에 사는 개구리 이야기와 북명에서 날아올라 남명까지 날아가는 봉새를 비웃던 매미와 작은 새인 학구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다른 이야기 속에 동식물우언이 포함될 경우 이 이야기는 ‘메타서사’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⁶¹⁾ 다시 말해 이 이야기는 예증으로 활용된 동식물우언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때의 이야기는 동식물우언의 우의를 활용하여 하나의 서사를 구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예증으로 활용된 동식물우언의 줄거리와 우의를 파악하고 있을 경우 더욱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장자》〈추수〉편에서는 북해의 신 若과 황하의 신의 대화가 등장한다. 이 이야기에서 북해의 신은 황하의 신에게 공간의 구속과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야만 도를 이해하게 된다고 말한다.⁶²⁾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60) 한비자는 법(法), 술(術), 세(勢) 삼요소를 주된 근거로 삼았으며 법가의 말은 모두 당시의 정치현실과 각 방면의 추세에 부응한 것이었다. 당시 각 방면의 추세는 옛것의 변혁이었는데 법가 역시 옛것의 변혁을 옹호했다. 그들의 논점은 옛것에 기탁하여 주장을 세우는(託古立言) 공자 이래의 관습을 일소하는 것이었다. 풍우란, 앞의 책, 503쪽 참고.

61) 서양의 우화집인 《이솝우화》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김태환에 따르면 “‘데모스테네스와 당나귀’는 이솝우화의 하나인데, 흥미롭게도 그 속에 전형적으로 이솝우화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인용되어 있다. 실제로 ‘당나귀 그림자’는 결말까지 온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한 편의 이솝우화다. ‘데모스테네스와 당나귀’는 이솝우화를 인용하는 이솝우화라는 점에서 메타우화의 성격을 지닌다.” - 김태환, 〈서사문학의 저자성 연구를 위한 서설〉, 한국비히너학회, 한국카프카학회, 한국토마스만학회, 한국헤세학회 공동학술대회(주제: 서사로 모던을 말하다, 2018. 4. 28일 서울대학교 개최) 발표 자료.

62) 《莊子》〈秋水〉, “北海若曰; 井蛙不可以語於海者, 拘於虛也. 夏蟲不可以語於冰者, 篤於時也. 曲士不可以語於道者, 束於教也. 今爾出於崖涘, 觀於大海, 乃知爾醜. 爾將可與語大理矣.”

[12] 북해의 신 若이 말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는 바다에 대해 말할 수 없는데 이것은 개구리가 우물이라는 공간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요. 마찬가지로 여름 벌레에게 얼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여름 벌레가 여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제약 받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비뚤어진 士에게 도에 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가르침에 속박 되어 있기 때문이요. 지금 당신은 물가에서 벗어나 큰 바다를 보았고 그제야 당신의 추함을 알게 되었소. 이제 당신은 위대한 도리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요.

천하의 물 중에서 바다보다 더 큰 것은 없소.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들며 물은 한시도 멈추는 일이 없는데, 바닷물은 차서 넘치지 않기 때문이요. 尾閭에서는 바닷물이 새는 것이 언제 그치는지 모르는 데도 물이 마르지 않소. 그러니 봄이나 가을에도 변함이 없고 장마가 오는지 가뭄이 드는지도 모르는 것이요. 그러니 이 바다는 장강이나 황하의 흐름보다 어느 정도 방대한지 헤아릴 수 없소.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것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소. 나는 하늘과 땅에서부터 형체를 물려받았고 음과 양에서 기운을 물려받은 것이요. 그러니 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어 큰 산에 있는 작은 돌이나 작은 나무와 다름없는 존재요. 바로 이렇게 내 존재가 작아 보이는데 어찌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하겠소?...63)

[12]에서 북해의 신 若은 개구리의 이야기를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다. 개구리라는 동물은 공간의 구속 때문에 넓은 바다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좁은 우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세계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간략하게 언급된 개구리 우언은 [12]의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를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로 작용하게 된다. [12]에서 서술된 내용은 “물가를 벗어나 큰 바다

- 莊周, 김학주 옮김, 앞의 책 394쪽.

63) 《莊子》〈秋水〉, “北海若曰: 「井蛙不可以語於海者, 拘於虛也; 夏蟲不可以語於冰者, 篤於時也; 曲士不可以語於道者, 束於教也. 今爾出於崖涘, 觀於大海, 乃知爾醜, 爾將可與語大理矣. 天下之水, 莫大於海, 萬川歸之, 不知何時止而不盈; 尾閭泄之, 不知何時已而不虛; 春秋不變, 水旱不知. 此其過江河之流, 不可爲量數. 而吾未嘗以此自多者, 自以比形於天地而受氣於陰陽, 吾在天地之間, 猶小石小木之在大山也, 方存乎見少, 又奚以自多!” - 莊周, 앞의 책, 392-394쪽.

를 보고서야 당신의 추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부분과 “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어서는 마치 작은 돌이나 작은 나무가 큰 산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인 것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깨달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 속에 개구리 우언이 간략하게 언급됨으로써 [12]는 메타서사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장자》〈庚桑楚〉편에 등장하는 ‘매미와 작은 새가 봉새를 비웃었던 것과 같다.’는 문장도 [12]의 동식물우언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이 문장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3] ‘ 옮겨가는 것’에 대해 논해 보자. 이는 자신의 삶을 본질로 삼고 자신의 지혜를 스승으로 삼고서는 시비를 따지니 결과적으로 명분과 내용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바탕으로 삼고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명분을 따르게 하려 들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죽음으로써 명분을 보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쓸 데 있는 일을 하면 슬기롭다 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면 어리석다고 한다. 뜻이 통하면 명예롭다고 하고 궁지에 몰리면 욕된다고 한다. 즉 ‘ 옮겨가는 것’이란 지금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미와 학구가 봉새를 비웃었던 것과 같다.⁶⁴⁾

[13]은 서술의 말미에서 “이것은 매미와 학구가 큰 봉새를 비웃었던 것과 같다 [是螻與學鳩同於同也]”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앞에 나온 서술을 메타서사적 성격을 지닌 글로 만들게 된다. 다시 말해 지금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타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매미와 학구가 봉새를 비웃었던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13]에서의 이야기는 봉새와 매미, 학구가 등장하는 동식물우언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64) 《莊子》〈庚桑楚〉, “請嘗言移是. 是以生爲本, 以知爲師, 因以乘是非; 果有名實, 因以己爲質; 使人以己爲節, 因以死償節. 若然者, 以用爲知, 以不用爲愚, 以微爲名, 以窮爲辱. 移是, 今之人也, 是螻與學鳩同於同也.” - 莊周, 앞의 책, 571쪽.

제 4 절 소결: 개별 우언의 우의를 통한 주장

《장자》와 《한비자》의 동식물우언은 의인법을 활용할 경우 우언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우의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두 텍스트들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은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묶지 않아도 각각의 우언이 저자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낼 수 있다.

司馬遷은 《史記》〈老莊申韓列傳〉에서 장자의 글쓰기를 두고 ‘모두가 헛된 말로 사실이 아니다’⁶⁵⁾라고 하였다. 이는 장자가 우언이라는 글쓰기에서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부분과 관련이 있다. 윤승준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우의는 이야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우언을 활용한 작가들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며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⁶⁶⁾라는 주장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자와 한비는 자신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인 우의를 이야기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우언을 활용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동식물의 의인화라는 수법을 선택하여 인물을 활용한 우언에서보다 더 우회적으로 핵심을 전달하고, 이야기에 흥미를 더할 수 있는 요소를 더한 것이다.

《장자》의 동식물우언은 다른 저작들에 비해 식물을 활용하여 서사를 구성한 경우가 비교적 많다. 장자는 이분법적이며 제한적인 인간 사유를 초월할 것을 표방하였다. 따라서 식물과 동물에 대한 구분 없이 서사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비자》는 동식물우언을 활용할 경우 동물을 소재나 제재로 하여 서사를 구성하였다. 한비는 인위적인 것을 중시하는 면모를 보이는데 이와 같은 성격은 한비가 주장한 주요 사상인 법가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65) 《史記》〈老子韓非列傳〉, “畏累虛、亢桑子之屬, 皆空語無事實. 然善屬書離辭, 指事類情, 用剝儒、墨, 雖當世宿學不能自解免也. 其言洸洋自恣以適己, 故自王公大人不能器之.”

66) 윤승준, 《動物寓言의 傳統과 寓話小說》, 41쪽.

제 3 장 의인법이 활용되지 않은 동식물우언

제 1 절 《呂氏春秋》의 동식물우언

《呂氏春秋》는 〈12紀〉, 〈8覽〉, 〈6論〉이라는 체계적인 배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12기〉는 각각 다섯 편의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12기〉의 다섯 편의 문장으로 설명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8람〉과 〈6론〉이 보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8람〉은 여덟 개의 覽이 각각 일곱 편의 문장으로 이루어져있고, 〈6론〉은 여섯 개의 論이 각각 여섯 편의 문장으로 이루어져있다. 張雙棣는 이와 같은 《여씨춘추》의 체계 구조가 선진시기에는 보기 어려운 구성 방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⁶⁷⁾ 즉 일반적인 선진 시기 저작들 중에서도 《여씨춘추》는 구성적 측면에서 볼 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이다. 《여씨춘추》의 〈12기〉, 〈8람〉, 〈6론〉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문장들은 여러 종류의 단편 서사들의 나열로 구성된다. 동식물우언은 단편 서사들의 나열 속에서 각각의 소재목과 관련된 이야기의 일부로써 곳곳에 산재해 있다. 《여씨춘추》에는 총 300여則의 우언 서사물이 실려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동식물우언은 총 7則으로 확인되었다.⁶⁸⁾ 《여씨춘추》에서 활용된 동식물우언의 목록과 그 서사 특성을 분석한 표는 아래와 같다.

67) “《呂氏春秋》是一部結構體系十分完備的著作，這在先秦著作中是絕無僅有的。它的結構體系是經過精心安排、精心設計的，自成一個系統。全書分為三個部分：紀，覽，論。” - 張雙棣, 《呂氏春秋》, 4쪽.

68) 《呂氏春秋》에 포함된 동식물우언 목록은 다음과 같다. 〈季秋紀·精通〉편의 포정이 소를 가르다[庖丁解牛] 이야기, 〈有始覽·諭大〉편의 제비와 참새의 안목[燕雀之志] 이야기, 〈孝行覽·必己〉편의 재목이 됨과 재목이 되지 않는 것의 중간[材與不材] 이야기, 〈審應覽·重言〉편의 한 번 울면 사람들을 놀라게 하다[一鳴驚人] 이야기, 〈審應覽·精諭〉편의 海上 지역의 잠자리[海上之蜻] 이야기, 〈不苟論·博志〉편의 양유기가 맞힌 원숭이[養由基善射] 이야기, 〈士容論·務大〉편의 제비와 참새의 안목[燕雀之志] 이야기이다. 《呂氏春秋》에서는 이와 같이 총 7則의 동식물우언이 활용되었으며 이야기들 중에서 의인법이 활용된 경우는 없었다.

[표 4-1] 《여씨춘추》 동식물우언 서사 특성 분석

《呂氏春秋》	상상 속 동식물	실제 동식물	소재	제재	서술 주체	
					소재	주제
〈精通〉 庖丁解牛	-	牛	牛	-	-	-
〈諭大〉 燕雀之志	-	燕雀	-	燕雀	-	-
〈必己〉 材與不材	-	木	-	木	-	-
〈重言〉 一鳴驚人	-	鳥	-	鳥	-	-
〈精諭〉 海上之蜃	-	蜃	-	蜃	-	-
〈博志〉 養由基善射	-	猿	猿	-	-	-
〈務大〉 燕雀之志	-	燕爵	-	燕爵	-	-

《여씨춘추》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서술 주체로서의 동식물이 우언 속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의인법을 활용한 동식물우언은 《여씨춘추》에 실려 있지 않다. 두 번째 특징은 여러 단편 서사들과 함께 교차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의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열된 여러 단편 이야기들을 하나의 완정된 문장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활용한 동식물우언이 다른 저서의 우언을 차용했을 경우에는 원작의 우의와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활용된 동식물우언은 우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립적 우의보다 주변 이야기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해석에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마지막 특징은 바로 체계적 구조에 의해 덧붙여지는 우의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씨춘추》의 구성 틀인 〈12기〉, 〈8람〉, 〈6론〉이라는 구조에 의해서 덧붙여지는 우의가 생

기는 경우이다. 《여씨춘추》의 〈12기〉는 음양가의 月令을 편찬 제재로 활용하였다. 월령은 1년 열두 달의 기후와 각 달에 행해지는 정령에 대해서 논한 것이다. 여불위는 〈12기〉를 통해 통일될 천하를 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판단은 〈季冬紀·序意〉편의 내용을 참고해볼 수 있다. 여불위는 〈서의〉편에서 다음과 같이 일컫는다.

대저 12기라는 것은 이를 통해 통치와 혼란, 생존과 멸망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장수와 요절, 길함과 흉함에 대해 알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늘을 관찰하고 아래로는 땅을 시험하며 중간으로는 사람을 관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하고 불가한지 살펴서 빠뜨리는 일이 없게 됩니다. 하늘은 순응을 의미하는데 고정되어야만 평안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신의를 의미하는데 신의를 지켜야만 교화가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가 제대로 되면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만사가 행해질 것입니다.⁶⁹⁾

즉 여불위는 《여씨춘추》에서 진나라의 천하 통일을 대비하여 원칙을 만들려 했으며 〈12기〉의 구성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1.1. 서사의 교차 관계를 통한 우의 획득

《여씨춘추》의 〈12기〉, 〈8람〉, 〈6론〉은 각각 다섯 편, 일곱 편, 여섯 편의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문장들은 모두 소재목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소재목 하에는 여러 단편 이야기들이 나열되며 글의 본론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장 속에서 나열되는 이야기들은 교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교차점은 중심 주제를 향해 수렴한다. 이 때 동식물우언은 여러 단편 이야기들과 함께 중심 주제에 대한 뒷받침 근거로써 활용된다. 소재목과 관련된 글의 요지는 글의 전반부 혹은 후반부에

69) 《呂氏春秋》〈季冬紀·序意〉, 凡十二紀者, 所以紀治亂存亡也, 所以知壽夭吉凶也. 上揆之天, 下驗之地, 中審之人, 若此則是非不可無所遁矣. 天曰順, 順維生; 地曰固, 固維寧; 人曰信, 信維聽. 三者咸當, 無爲而行. - 呂不韋, 정하현 역, 《呂氏春秋》, 309-310쪽.

서 간략하게 정리되어 기술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다시 말해 전반부 혹은 후반부에 의론을 배치하고 본론인 중간 부분에 우언과 같은 이야기들을 배치한 것이다.

먼저 〈孝行覽·必己〉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의 예를 살펴보자.⁷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1] 莊子が 산속을 지나다가 나무를 보았는데 매우 아름답고 높고 크며 가지와 잎도 무성했다. 별목하는 사람이 옆에서 나무를 베지 않아 이유를 물으니 “쓸 데가 없기 때문입지요”라고 대답했다. 장자가 말했다. “이 나무는 재목이 못되어 천수를 마칠 수 있구나” 산에서 내려와 마을에 이르러서는 옛 친구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친구는 기뻐하면서 술과 고기를 마련하여 일하는 아이에게 거위를 잡아 대접하도록 하였다. 아이가 청하여 물었다. “한 마리는 울 수 있고 한 마리는 울지 못하는데 어떤 놈을 잡을까요?” 주인은 “울지 못하는 놈을 잡거라”라고 말했다. 다음날 제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지난 번 산속의 나무는 재목이 못되어 천수를 마칠 수 있었는데 주인의 거위는 재목이 못되어 죽었으니 선생님께서는 장차 어떻게 처신하실 것입니까?” 장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장차 재목이 되는 것과 재목이 되지 않는 것 사이에 처신할 것이다. 재목이 되고 되지 않는 것의 사이는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니 누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道와 德에 처신한다면 그러하지 않으니 칭송할 것도 없고 헐뜯을 것도 없으며 용이 되고 뱀이 되기도 하면서 때와 함께 변화하니 오로지 한 가지만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내려오기도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기량으로 삼아 만물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浮游하면서 만물을 만물로 주재하되 만물에 의해서 부림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하여 누를 겪겠느냐? 이것이 신농과 黃帝가 본받은 것이다. 대개 만물의 실정이나 인륜이 전해 내려 온 자취를 보면 그렇지 않으니, 이루어지는 듯하면 무너지고, 강대해지는 듯하면 쇠락하고, 날카로운 듯하면 깎이고, 존귀한 듯하면 기울어지고, 곧은 듯하면 굽어지고, 합쳐지는 듯하면 헤어지고, 사랑받는 듯하면 버려지고, 지혜가 많은가 싶으면 모사를 피하고, 불초하다 싶으면 속인다. 그러니 어떻게 반드시 누를 모면 할 수 있겠느냐?”⁷¹⁾

70) 〈필기〉의 내용 중에서 동식물우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짧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본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서사들의 교차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부만을 제외하고 전체 글을 예시로 실었다.

이 글에서 [14-1]은 동식물우언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활용된 나무와 거위 자체에는 우의가 기탁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우언이 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여기서 나무와 거위는 장자의 대답을 통해 우의를 획득하게 된다. [14-1]의 이야기는 《장자》〈山木〉편에도 실려 있다. 《장자》에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쓰임[用]과 쓰이지 않음[無用]의 경지를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道와 德에서 소요할 때 비로소 인간들이 당하는 재난들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씨춘추》〈효행람·필기〉에서는 전반적인 문장의 맥락에 의해 《장자》 원문에서의 우의와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즉〈필기〉라는 소재목 하에서 나열된 나머지 이야기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원문에서의 우의와는 다른 뜻이 내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문장에 함께 나열되어 있는 나머지 이야기들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14] 여덟 번째로 말해보자. 외재적인 사물은 필연적일 수 없다. 따라서 龍逢은 주살되었고 比干은 戮屍에 처해졌으며 箕子는 미친척했으며 惡來는 죽고 桀과 紂는 망하게 된 것이다. 군주가 되어 신하의 충성을 바라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지만 신하가 충성을 한다고 반드시 신임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伍員은 강에 버려졌고 婁弘은 죽어서 그 피를 간직해두었더니 삼 년 만에 푸른 옥이 된 것이다. 부모가 되어 자식의 효도를 바라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지만 자식이 효도를 한다고 반드시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孝己는 의심을 받았고 曾子는 슬퍼하였던 것이다...(중략)...

[14-2] ... (중략) ... 牛缺은 上地의 훌륭한 儒者였는데 邯鄲으로 내려가다가 耦沙에서 도적을 만났다. 도적들이 전대 속에 실은 것을 요구하자 내어주고 마

71) 《呂氏春秋》〈孝行覽·必已〉, “莊子行於山中, 見木甚美長大, 枝葉盛茂, 伐木者止其旁而弗取, 問其故, 曰: “無所可用.” 莊子曰: “此以不材得終其天年矣.” 出於山, 及邑, 舍故人之家. 故人喜, 具酒肉, 令豎子爲殺鴈饗之. 豎子請曰: “其一鴈能鳴, 一鴈不能鳴, 請奚殺?” 主人之公曰: “殺其不能鳴者.” 明日, 弟子問於莊子曰: “昔者山中之木以不材得終天年, 主人之鴈以不材死, 先生將何以處?” 莊子笑曰: “周將處於材不材之間. 材不材之間, 似之而非也, 故未免乎累. 若夫道德則不然, 無諉無訾, 一龍一蛇, 與時俱化, 而無肯專爲, 一上一下, 以禾爲量, 而浮游乎萬物之祖, 物物而不物於物, 則胡可得而累? 此神農·黃帝之所法. 若夫萬物之情·人倫之傳則不然, 成則毀, 大則衰, 廉則剝, 尊則虧, 直則戩, 合則離, 愛則隳, 多智則謀, 不肖則欺, 胡可得而必?” - 許維遇, 《呂氏春秋集釋》上, 卷14, 35-36쪽.

차와 말을 요구하자 내어주었으며 입고 있던 옷을 달라고 하자 내주었다. 우걸이 떠나자 도적들이 서로 말했다. “이 사람은 천하에서도 명성 있는 인물인데 지금 이처럼 욕을 보였으니 반드시 萬乘의 군주에게 우리를 일러바칠 것이고 만 승의 군주는 반드시 우리들을 주살할 것이며 우리는 절대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를 쫓아가 죽여서 흔적을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다.” 이에 함께 쫓아가 삼십 리를 가서는 그를 붙잡아 죽였다. 그가 죽게 된 것은 알았기 때문이었다...(중략)...

[14-3] …(중략)…張毅는 공손한 것을 좋아하여 대문이나 마을의 문 또는 발을 내린 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걸음을 빨리 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마부, 인척, 어린 아이 모두 공경하게 대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자신을 안정시키려 했으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속에서 열이 나 죽었다. 單豹는 신선술을 좋아하여 속세를 떠나 곡식을 먹지 않고 따뜻한 옷을 걸치지 않으며 산 속의 바위 동굴에 살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자 했으나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

[14-4] 孔子가 길을 가다가 쉬고 있는데 말이 도망가서는 남의 농작물을 먹어버리자 시골 사람이 그 말을 붙잡아 두었다. 子貢이 청하여 그를 설득했으나 이야기를 마쳐도 시골 사람은 듣지도 않았다. 막 공자를 섬기게 된 시골뜨기가 있었는데 그가 말했다. “청컨대 제가 시골 사람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시골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이 동해에서 농사짓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서해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의 말이 당신의 벼를 먹을 수 없다는 거요?” 그 시골 사람이 매우 기뻐하면서 서로 말했다. “말하는 것에도 이렇게 숨씨가 있구먼, 어떻게 지난 번 사람과 같을까?” 하고는 말을 풀어주었다. 설득을 한다는 것이 이와 같이 방책이 없는 것 같아도 오히려 통하는 때가 있으니 외재적인 사물이 어떻게 필연적일 수 있다는 말인가?

[14-5] 군자는 스스로 행동하는 것에서 남을 공경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공경 받지는 않으며, 남을 사랑하지만 반드시 사랑을 받게 되지는 않는다. 남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지만 공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군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근거할 뿐 반드시 남에게 근거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근거할 때 만남이 없을 수 없다.⁷²⁾

72) 《呂氏春秋》〈孝行覽·必已〉, “八曰: 外物不可必, 故龍逢誅, 比干戮, 箕子狂, 惡來死, 桀・紂亡. 人主莫不欲其臣之忠, 而忠未必信, 故伍員流乎江, 萇弘死, 藏其血三年而爲碧. 親莫不欲

[14]와 [14-5]는 <필기>라는 문장의 서론과 결론의 역할을 함으로써 문장 전반의 주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두 단락은 공통적으로 타인에게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즉 [14-5]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군자는 자신에게 근거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근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신에게 근거해야 때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14]에서 [14-4]까지의 이야기들은 <필기>라는 중심 주제를 공통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제시되었으며 [14-5]는 결론의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설정되었다. 즉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글을 마무리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14]는 《장자》〈外物〉편의 내용을 활용한 것으로 서두를 구성하고 있다. “외재적인 사물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外物不可必]”라는 문장은 서두를 구성하고 있다. 이 문장은 <필기>를 관통하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에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14-5]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審應覽·重言>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의 예이다. 이 동식물우언은 楚莊王과 成公賈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15]에서 등장하는 새[鳥]는 그 자체에 우의가 깃들여 있지는 않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상황과 맥락에 의해 우의가 포함되는 것이다.

[15] 楚莊王은 즉위한지 삼 년이 되었는데 정치에 관해서는 듣지 않고 수

其子之孝，而孝未必愛，故孝已疑，曾子悲…(中略)…牛缺居上地，大儒也，下之邯鄲，遇盜於耦沙之中。盜求其橐中之載則與之，求其車馬則與之，求其衣被則與之。牛缺出而去。盜相謂曰：“此天下之顯人也，今辱之如此，此必想我於萬乘之主，萬乘之主必以國誅我，我必不生，不若相與追而殺之，以滅其迹。”於是相與趨之，行三十里，及而殺之。此以知故也。孟賁過於河，先其五，船人怒，而以楫撻其頭，顧不知其孟賁也。中河，孟賁瞋目而視船人，髮植，目裂，鬢指，舟中之人盡揚播入於河。使船人知其孟賁，弗敢直視，涉無先者，又況於辱之乎！此以不知故也…(中略)…張毅好恭，門閭帷薄聚居衆無不趨，輿隸嫗媼小童無不敬，以定其身，不終其壽，內熱而死。單豹好術，離俗棄塵，不食穀實，不衣芮溫，身處山林巖壑，以全其生，不盡其年，而虎食之。孔子行道而息，馬逸，食人之稼，野人取其馬。子貢請往說之，畢辭，野人不聽。有鄙人始事孔子者曰：“請往說之。”因謂野人曰：“子不耕於東海，吾不耕於西海也，吾馬何得不食子之禾？”其野人大說，相謂曰：“說亦皆如此其辯也，獨如嚮之人？”解馬而與之。說如此其無方也而猶行，外物豈可必哉？君子之自行也，敬人而不必見敬，愛人而不必見愛。敬愛人者已也，見敬愛者人也。君子必在己者，不必在人者也。必在己，無不遇矣。” - 許維遇, 앞의 책, 卷14, 347-351쪽.

수수께끼를 좋아했다. 成公賈가 간언을 하러 들어가니 왕이 말했다. “짐이 간언을 금하였는데도 지금 그대가 간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그러자 대답했다. “저는 감히 간언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폐하께 수수께끼를 내리 온 것입니다.” 장왕이 말했다. “어찌 과인에게 수수께끼를 내지 않는가.” 그러자 성공고가 대답했다. “어떤 새가 있는데 남쪽 언덕에 자리를 잡고는 삼 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새입니까?” 그러자 장왕이 그것을 알아맞히고 말했다. “어떤 새가 남쪽 언덕에 자리 잡고 앉아 삼 년이 되도록 움직이지 않은 것은 장차 뜻을 안정되게 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그 새가 날지 않은 것은 날개를 기르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 새가 울지 않은 것은 장차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 새는 비록 날지 않았지만 날고자 하면 장차 하늘 높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 새는 비록 울지 않았지만 울고자 하면 장차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대는 나가보라 과인은 그것을 알겠다.” 다음 날 조정의 관직에 나선 사람이 다섯 명이었고 물러난 사람은 열 명이었다. 신하들은 크게 기뻐하였고 초나라의 군중들은 서로 축하하였다. 그러므로 《詩經》에서 말하길 “어찌 그리 오래 걸릴까 반드시 까닭이 있다네. 어찌하여 그렇게 속 편하게 있을까? 반드시 다른 나라 군사와 함께 오려는 것이겠지.” 이것은 장왕을 가리킨 말인가? 성공고의 수수께끼는 太宰嚭의 설득보다 현명했다. 태재비의 설득은 부차에게 받아들여지기는 했으나 뫼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성공고의 수수께끼는 장왕을 깨우치게 함으로써 장왕이 패자가 되게 만들었다.⁷³⁾

[15]에서의 새는 수수께끼라는 방식을 통해 이야기 속에 등장한다. 수수께끼의 형식을 빌렸지만 [15]는 동물우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성공고의 수수께끼에서 등장하는 새는 동물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움직이지 않고, 날

73) 《呂氏春秋》〈審應覽·重言〉, 荊莊王立三年, 不聽而好讒. 成公賈入諫, 王曰: “不穀禁諫者, 今子諫, 何故?” 對曰: “臣非敢諫也, 願與郡王讒也.” 王曰: “胡不設不穀矣.” 對曰: “有鳥止於南方之阜, 三年不動不飛不鳴, 是何鳥也?” 王射之曰: “有鳥止於南方之阜, 其三年不動, 將以定志意也. 其不飛, 將以長羽翼也. 其不鳴, 將以覽民則也. 是鳥雖無飛, 飛將沖天. 雖無鳴, 鳴將駭人. 賈出矣, 不穀知之矣.” 明日朝, 所進者五人, 所退者十人. 羣臣大說, 荊國之衆相賀也. 故詩曰: “何其久也, 必有以也. 何其處也? 必有與也.” 其莊王之謂邪? 成公賈之讒也, 賢於太宰嚭之說也. 太宰嚭之說, 聽乎夫差而吳國爲墟; 成公賈之讒, 喻乎荊王而荊國以霸. - 許維遇, 《呂氏春秋集釋》下, 卷18, 377-381쪽.

지도 않으며, 울지도 않음은 새와 같은 생물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다. 여기서 새는 초나라의 장왕을 빗대어 표현하는 소재로 활용되었다. 성공고는 “어떤 새가 있는데 남쪽 언덕에 자리를 잡고는 삼 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새입니까?[有鳥止於南方之阜，三年不動不飛不鳴，是何鳥也]”라고 장왕에게 묻는다. 이 때 성공고는 새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수수께끼[讖]를 좋아하는 장왕의 흥미를 끌기 위해 그가 좋아하는 형식으로 질문을 던졌을 뿐이다. 그러나 [15]의 말미에서 장왕은 그 새가 자신의 모습임을 깨달으며 수수께끼를 풀게 된다. 이것은 “그러자 장왕이 그것을 알아맞히고 말했다[王射之曰]”라는 부분과 “과인은 그것을 알겠다[賈出矣，不穀知之矣]”라는 장왕의 마지막 대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성공고는 새와 관련하여 수수께끼를 넘으로써 서사를 만들어 내는데 촉매의 역할을 하고 있다. [15]의 이야기는 《한비자》에서 먼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 楚莊王이 정사를 맡은 지 삼 년이 되도록 법령을 내리지 않고 정무를 집행하지도 않았다. 右司馬가 장왕을 모시고 수수께끼를 내었다. “남쪽 언덕에 새가 앉아 있는데, 삼 년 동안 날갯짓도 없고 날지도 않으며 울지도 않아 조용하니 소리가 없는데, 이 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왕이 대답했다. “그 새가 삼 년 동안 날갯짓이 없는 것은 장차 날개를 크게 펼치려는 것이다. 날지 않고 울지도 않는 것은 앞으로 백성들이 지킬 규칙들을 살피고자 함이다. 비록 날지 않더라도 한 번 날면 반드시 하늘을 찌를 것이고, 비록 울지 않지만 한 번 울면 반드시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대는 걱정하지 말라. 나도 이것을 알고 있다” 반년이 지나자 이윽고 왕은 직접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으니 폐지한 것이 열 가지였으며 기안한 것이 아홉 가지였다. 별을 내린 신하들이 다섯이었고 등용한 처사가 여섯이었으니 나라가 크게 다스려졌다. 군사들을 일으켜 齊나라를 쳐서 徐州를 취했고 河水와 衡雍에서는 晉나라에 승리를 거두었고 宋나라에서 제후들과 회맹하여 결국 천하를 제패하게 되었다. 장왕은 작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일찍이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큰 그릇은 이루어지는 것이 늦고 큰 폭은 소리가 거의 없다”라고 한 것이다.⁷⁴⁾

《한비자》에 실려 있는 [16]번 이야기는 《老子》에 실려 있는 구절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 활용되었다. 설명한 《노자》의 구절은 “大器晚成, 大音希聲[큰 그릇은 이루어지는 것이 늦고 큰 소리는 소리가 거의 없다]”⁷⁵⁾라는 부분이다. 이 이야기에서 장왕은 수수께끼를 낸 신하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인식된다. “장왕은 작은 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일찍이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莊王不爲小害善, 故有大名; 不蚤見示, 故有大功]”⁷⁶⁾는 부분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 이 이야기에서의 장왕은 이미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알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뜻을 숨기고 있는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수수께끼 속에서 등장한 새는 장왕이 가지고 있었던 뜻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여씨춘추》에서의 [15]번 우언은 《한비자》에서 활용된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활용되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겉보기에 유사하지만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15]번 우언은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나열됨으로써 전반적인 문장이 하고자 하는 맥락에 따라 원래 이야기와는 다른 우의가 덧붙여졌다. [15]번 우언이 실려 있는 〈重言〉의 가장 첫 번째 단락은 이러한 구절로 시작된다. “군주의 말은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중략)…옛날의 천자는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이와 같았으므로 말에 허물이 없었다.”⁷⁶⁾ 이 구절 뒤에는 여러 인물들의 예를 들어 군주가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되는 단편 이야기들이 나열된다.⁷⁷⁾ [15]번 우언에

74) 《韓非子》〈喻老〉, “楚莊王莅政三年, 無令發, 無政爲也. 右司馬御座而與王隱曰: “有鳥止南方之阜, 三年不翅, 不飛不鳴, 嘿然無聲, 此爲何名?” 王曰: “三年不翅, 將以長羽翼; 不飛不鳴, 將以觀民則. 雖無飛, 飛必沖天; 雖無鳴, 鳴必驚人. 子釋之, 不穀知之矣.” 處半年, 乃自聽政, 所廢者十, 所起者九, 誅大臣五, 舉處士六, 而邦大治. 舉兵誅齊, 敗之徐州, 勝晉於河雍, 合諸侯於宋, 遂霸天下. 莊王不爲小害善, 故有大名; 不蚤見示, 故有大功. 故曰: “大器晚成, 大音希聲.”” - 王先慎, 앞의 책, 168쪽.

75) 《老子》, “大方無隅, 大器晚成, 大音希聲, 太象無形, 道隱無名.”

76) 《呂氏春秋》〈審應覽·重言〉, “人主之言, 不可不慎…(中略)…古之天子, 其重言如此, 故言無遺者.” - 許維遇, 앞의 책, 卷18, 477쪽.

77) 관련된 단편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高宗, 成王과 唐叔虞와 周公, 齊나라 桓公과 管仲과 東郭牙이다. 이 세 이야기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군주가 하는 말의 신중함에 대해 깨닫게 하는 내용이다. 가령 성왕과 당숙우와 주공의 예를 보자.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성왕이 당숙우에게 장난삼아 ‘너를 제후에 봉한다’라고 하자 당숙우는 자신이 정말 제후가 될 것이라고 믿고 주공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주공은 이 이야기를 듣고 성왕에게 확인을 하러 간다. 성왕은 장난삼아 한 말이라고 하지만 주공은 “천자

서는 오히려 장왕에게 수수께끼를 던지는 신하의 역할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된다. 동물우언이 실려 있는 전반적 문장이 군주는 말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알리고자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5]번의 우언은 원작에서의 우언을 활용하되 직접적으로 같은 우의를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설명하고자 하는 맥락에 맞게 이야기를 수정하거나 다른 이야기들과 교차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우의를 만들어 낸 것이다.

1.2. 체계적 구조를 통한 주제 구현

《여씨춘추》의 동식물우언은 구조적 특성에 의해 우의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구조적으로 생겨난 우의는 오히려 저자의 의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실마리가 된다. 《여씨춘추》의 〈12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각기 孟·仲·季라는 세 달로 나누어서 각 달을 하나의 紀로 만들어 기록한 것이다. 呂不韋는 〈序意〉에서 《여씨춘추》의 〈12기〉를 구성하게 된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⁷⁸⁾ 여불위는 하늘[天]을 관찰하고 땅[地]을 시험하며 중간에 있는 사람[人]을 관찰하기 위해 〈12기〉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보고 이치에 통달하면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성 체계에 의해 우언에서 덧붙여지는 우의가 생겨

는 장난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라며 한 말을 지키게 한다. (許維遇, 위의 책, 卷18, 477쪽 참고)

78) 《呂氏春秋》〈序意〉, “대저 12기라는 것은 이를 통해 통치와 혼란, 생존과 멸망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장수와 요절, 길함과 흉함에 대해 알리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늘을 관측하고 아래로는 땅을 시험하며 중간으로는 사람을 관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가하고 무엇이 불가한지 살펴서 빠뜨리는 일이 없게 됩니다. 하늘은 순응을 의미하는데 순리를 따라야만 생존할 것입니다. 땅은 고정을 의미하는데 고정이 되어야만 평안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신의를 의미하는데 신의를 지켜야만 교화가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가 제대로 되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실행될 것입니다.…(중략)…세 가지가 모두 사사롭게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지혜는 공정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지혜가 공정하지 않다면 복과 덕이 나날이 쇠미해지고 재앙이 나날이 번성해질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있는 것을 서쪽을 바라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 呂不韋, 정하현 역, 《呂氏春秋》, 309-310쪽 참고.

나게 된다.

다음은 체계적인 구조에 따라 우의를 획득하게 되는 동식물우언의 예이다. 이 동식물우언은 〈季秋紀・精通〉편에 실려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 양유기는 외뿔소에게 활을 쏘다가 화살이 바위에 명중했는데 화살이 깃털부분까지 들어갔다. 이것은 정기가 외뿔소에 통했기 때문이다. 伯樂은 말을 감정하는 것을 배웠는데 보는 것마다 말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없었으니 이것은 정기가 말에 통했기 때문이다. 宋나라의 포정은 소를 잘 해체했는데 보는 것마다 죽은 소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삼 년 동안 살아 있는 소를 보지 않았다. 칼을 십 구년이나 썼는데 칼날이 마치 새것처럼 갈려 있었으니 이것은 이치를 따르고 정기가 소에 통했기 때문이다.⁷⁹⁾

[18]의 동식물우언은 《장자》〈養生主〉에 등장하는 우언을 차용하고 있다. 이 우언은 庖丁解牛라는 성어의 유래가 되는 우언이다. 《장자》에서는 이 이야기가 포정과 文惠王의 대화로 이루어지며 하나의 단편 우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여씨춘추》에 비해 그 서사의 길이도 비교적 길다.

물론 [18]번 우언은 《장자》에서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계추기・정통〉편에서는 〈정통〉이라는 소제목과 관련하여 가지게 되는 우의가 더 존재한다. 다시 말해 구조적인 측면에서 덧붙여지는 우의가 생긴다는 것이다. 즉 통치자들이 정성을 다 할 때 백성들은 그에 감응하여 안정적이게 된다는 것이다.

79) 《呂氏春秋》〈季秋紀・精通〉, 養由基射兕, 中石, 矢乃飲羽, 誠乎兕也. 伯樂學相馬, 所見無非馬者, 誠乎馬也. 宋之庖丁好解牛, 所見無非死牛者; 三年而不見生牛; 用刀十九年刃若新磨, 順其理, 誠乎牛也. 鍾子期夜聞擊磬者而悲, 使人召而問之曰: “子何擊磬之悲也?” 答曰: “臣之父不幸而殺人, 不得生; 臣之母得生, 而爲公家爲酒; 臣之身得生, 而爲公家擊磬. 臣不親臣之母三年矣. 昔爲舍氏親臣之母, 量所以贖之則無有, 而身固公家之財也, 是故悲也.” - 許維遇, 《呂氏春秋集釋》上, 卷9 17쪽.

제 2 절 《淮南子》의 동식물우언

《淮南子》는 총 140여 개의 우언 서사물이 실려 있다. 그 중에서 동식물우언의 개수는 총 6則으로 확인되었다.⁸⁰⁾ 《회남자》의 동식물우언은 《여씨춘추》의 동식물우언과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 《회남자》 역시 의인법을 활용하여 동식물이 직접 서술의 주체가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즉 《회남자》에 실려 있는 이야기 속의 동식물은 우언 내에서 소재 또는 제재로 활용되었다. 《회남자》의 동식물우언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논의함으로써 우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동식물우언은 《회남자》내에서도 〈人間〉편에 다수 몰려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회남자》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인 天人感應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겠다. 《회남자》 동식물우언의 서사적 특성을 분석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 5-1] 《淮南子》 동식물우언 서사 특성 분석

《淮南子》	상상 속 동식물	실제 동식물	소재	제재	서술 주체	
					소재	주제
〈覽冥〉 赤螭與青虵	赤螭 青虵 鳳凰	蛇 鰐 燕雀	蛇 鰐 燕雀	赤螭 青虵 鳳凰	-	-
〈道應〉 蹶取甘草	蹶 蛩蛩駘駘	甘草	蹶 蛩蛩駘駘 甘草	-	-	-
〈人間〉 塞翁之馬	-	馬	-	馬	-	-

80) 《淮南子》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은 다음과 같다. 〈覽冥〉편의 赤螭와 青虵[赤螭與青虵] 이야기, 〈道應〉편의 蹶이 蛩蛩駘駘에게 감초를 따주다[蹶取甘草] 이야기, 〈人間〉편의 새옹의 말[塞翁之馬] 이야기, 〈人間〉편의 까치의 집짓기[鵲巢扶枝] 이야기, 〈人間〉편의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아서다[螳螂拒轍] 이야기, 〈人間〉의 여우의 꿩 사냥[狐之捕雉] 이야기로 총 6則이 실려 있다. 《회남자》에 실려 있는 6則의 동식물우언도 《여씨춘추》와 같이 의인법이 활용되지 않았다.

〈人間〉 鵲巢扶枝	-	鵲	鵲	-	-	-
〈人間〉 螳螂拒轍	-	螳螂	螳螂	-	-	-
〈人間〉 狐之捕雉	-	狐	狐 雉	-	-	-

《여씨춘추》에서는 《장자》에 실려 있던 동식물우언의 내용과 형식을 차용하여 유사하게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남자》의 동식물우언에서도 이와 같은 특징이 보인다. 자체적으로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이미 구성되어 전해지는 이야기를 차용하여 재구성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회남자》에서는 《장자》 혹은 《여씨춘추》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들을 활용하여 우언을 만들어 낸 것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 때 활용된 우언은 《회남자》 텍스트 전반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논지 혹은 핵심 소재와 적합하도록 배치시킨 경우가 많았다.

《회남자》는 구성의 측면에서 《여씨춘추》와의 유사점이 존재한다. 자체적으로 유기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일정한 조리와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⁸¹⁾ 그러므로 《회남자》의 동식물우언에서도 체계적 구조에 따라 생겨나는 우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한 후 《회남자》의 우언을 살펴볼 때, 비로소 활용되어있는 동식물우언의 진정한 우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2.1.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한 우의 발현

《회남자》는 天人感應 또는 同氣相應과 같은 자연의 이치에 관해 논하는 이야기

81) 梁啓超는 《漢書藝文志諸子略考釋》에서 《회남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 그 책이 비록 蘇飛 등의 무리에 의해 나누어 편찬되었다고 하지만, 그 근본 중지 및 체계는 반드시 먼저 일정한 계획을 세운 이후 저술에 착수하였다. 대개 심혈을 기울여 저술하였기에 지극히 질서 정연하여 아무렇게나 늘어놓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進南鴻烈》은 도가 학설을 집대성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 劉晔, 이석명 옮김, 《淮南子》1, 32 쪽 재인용.

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우언들이 존재한다. 인간의 〈인간〉편의 동식물우언은 사람과 자연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다음은 성어 ‘塞翁之馬’의 유래가 되는 우언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9] 국경지대 가까이 사는 사람으로 점술에 뛰어난 사람이 있었다. 그의 말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달아나 胡 땅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모두 위로를 하자, 그 아버지가 말하였다.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소!” 몇 개월 지나자 달아났던 말이 호 땅의 준마를 데리고 돌아왔다. 사람들이 모두 축하를 하자, 그가 말하였다. “이 일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소!” 집 안에 좋은 말로 가득 차자, 그 집의 아들이 말 타기를 좋아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넓적다리가 부러졌다. 사람들이 모두 위로를 하자, 그 아버지가 말하였다.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소!” 1년이 지나서 호 땅 사람들이 대규모로 국경지역을 침입해 왔다. 장정들은 활을 쏘며 싸웠는데, 국경지대의 사람들이 열에 아홉은 죽어 나갔다. 오직 그 집의 아들은 절름발이였기 때문에 부자가 모두 온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복이 화로 변하고 화가 복으로 변하는 것은, 그 변화가 끝이 없어서 쉽게 헤아릴 수 없다.⁸²⁾

[19]의 우언에서 말은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중심 소재로 활용되었다. [19]에서 사람들은 말이라는 동물에 의해 복을 얻기도 하고 화를 입기도 한다. 복을 얻게 되는 경우는 집을 나갔던 말이 호 땅의 준마를 데리고 온 경우이다. 더불어 준마를 타다가 다친 아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 살아남게 된 일이다. 화를 입게 된 경우는 바로 공짜로 준마를 얻게 되어 타다가 아들이 다리를 다친 경우이다. 이처럼 말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빚대어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로 활용되었다.

82) 《淮南子》〈人間〉, “近塞上之人有善術者, 馬無故亡而入胡, 人皆弔之. 其父曰: “此何遽不爲福乎!” 居數月, 其馬將胡駿馬而歸, 人皆賀之. 其父曰: “此何遽不能爲禍乎!” 家富良馬, 其子好騎, 墮而折其髀, 人皆弔之. 其父曰: “此何遽不爲福乎!” 居一年, 胡人大入塞, 丁壯者引弦而戰, 近塞之人, 死者十九, 此獨以跛之故, 父子相保. 故福之爲禍, 禍之爲福, 化不可極, 深不可測也.” - 劉晏, 이석명 옮김, 위의 책.

《회남자》〈要略〉편에서는 〈인간〉편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다. “재앙과 복[禍福]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익과 해로움이 상반되는 부분을 살피며, 득실의 자취를 깊이 있게 고찰하고 사물의 시작과 끝을 드러내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편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상호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서로 반응한다는 요지를 드러내기 위해 지어졌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회남자》를 관통하고 있는 천인감응에 대한 핵심은 자연계와 인간계가 서로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지며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⁸³⁾ 이와 같은 사상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해하자면 [19]번의 우언은 말이 라는 동물은 자연계를 대표하는 하나의 제재로 활용되었고 塞翁은 인간을 대표하는 소재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를 이야기로 만들어내면서 《회남자》가 중심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천인감응’의 이야기도 쉽게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2.2. 의도적 편집에 의한 주제 발현

《회남자》〈人間〉편에는 《장자》의 〈人間世〉편에서 나온 사마귀 관련 우언을 활용한 우언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인간세〉편에서 우언이 활용된 서사적 맥락과 〈인간〉편에서 주장하고자하는 주제는 차이를 가진다. ‘坐忘’과 ‘心齋’는 모두 ‘도’에 들어서는 경지이다. 《장자》〈인간세〉편에서는 좌망을 통해 형체라는 틀을 초월하고 탐욕을 잊어버림으로써 인간의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실체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경지에 들어서면 마치 《장자》〈大宗師〉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만물과 한 몸이 되고 편애가 없어지며 만물의 변화에 참여하면 편견이 없어지게 되는”⁸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20] 齊 莊公이 사냥을 나갔는데, 어떤 곤충 한 마리가 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

마부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곤충인가?”

83) 이석명, 《회남자》, 사계절, 2004, 106쪽.

84) 《莊子》〈大宗師〉, “同則無好也. 和則無常也.” - 王先謙, 劉武, 위의 책, 285쪽.

마부가 대답했다. “이것은 사마귀라는 놈입니다. 이놈은 앞으로 나갈 줄만 알고 뒤로 물러날 줄 모르며, 자기 힘을 헤아리지 않고 적에게 달려듭니다.”

장공이 말하였다. “이것이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천하의 용맹한 무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수레를 돌려 그 사마귀를 피해 갔다. 용사들이 이 말을 듣고 자신들의 목숨을 바칠 곳을 알았다.⁸⁵⁾

《회남자》〈인간〉의 사마귀 우언은 역사고사 속에 실재했던 인물들을 전반부에 등장시켜 서술하고 후반부에는 의론을 통해 聖人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반면 《장자》에서 활용된 사마귀와 관련된 고사가 가지는 의미는 《회남자》에서 쓰인 우언과 맥락이 다르다. 우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그대는 사마귀를 알지 못하십니까? 사마귀는 화가 나면 자신의 집게를 벌리고 수레바퀴를 막아서고는 자기가 깔려 죽을 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의 훌륭함만 믿고 있는 격이지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훌륭함을 매우 뽐내면서 상대방을 범하게 되면 위태로워집니다.”

[21]의 이야기는 安陝과 蘧伯玉의 대화로 시작된다. 즉 장자에 쓰인 이야기에서는 사마귀 우언이 제시되기 전에 먼저 거백옥에게 안합이 처세술에 대해 문답하는 이야기가 제시된 후 사마귀 우언이 언급된다는 것이다. 이 우언의 요지는 사마귀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 결국 수레에 깔려 죽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권력자에게 대항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즉 《장자》에서 등장한 사마귀 이야기는 권력자들에게 처세하는 방법을 주장했다면 회남자에서는 성인이 가져야 할 특징들 중 하나를 설명하는데 활용되었다.

이상에서 분석한 내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회남자》 내에서는 〈인간〉편에서

85) 《淮南子》〈人間〉, “...齊莊公出獵, 有一蟲舉足將搏其輪, 問其禦曰: 此何蟲也? 對曰: 此所謂螳螂者也. 其爲蟲也, 知進而不知卻, 不量力而輕敵. 莊公曰: 此爲人而必爲天下勇武矣. 回車而避之. 勇武聞之, 知所盡死矣...”, - 劉晏, 앞의 책, 497쪽.

가장 많은 수의 동식물우언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회남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感應思想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감응사상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관련성이 깊은 〈인간〉편에 많은 수의 동식물우언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제 3 절 예증으로 활용된 경우

《여씨춘추》에서는 《장자》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을 예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때 원작에서의 우의는 《여씨춘추》 텍스트에서 주장하고자하는 내용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씨춘추》에는 동식물우언이 다른 이야기 속에서 예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恃君覽・長利〉에는 《장자》의 봉과 곤의 이야기가 예증의 방식으로 활용된다. 다만 봉과 곤 이야기는 변형을 거쳤으나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 “지금 제비와 참새로 하여금 鴻鵠과 봉황의 처지가 되어 생각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얻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왓장 틈이나 지붕의 그늘입니다. 홍곡이나 봉황은 한 번 움직이면 천리를 날아가는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덕이 융성하지 않고 도의가 크지 않으면 교외에까지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비루한 백성들은 그들이 현자를 생각하는 것이 고작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망령되게 비방하고 헐뜯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⁸⁶⁾

이 이야기에서는 《장자》에서 등장한 봉새에 대한 이야기⁸⁷⁾를 예증으로 활용하

86) 《呂氏春秋》〈長利〉, “今使燕爵爲鴻鵠鳳皇慮, 則必不得矣. 其所求者, 瓦之間隙, 屋之翳蔚也, 與一舉則有千里之志, 德不盛・義不大則不至其郊. 愚庫之民, 其爲賢者慮, 亦猶此也. 固妄誹訾, 豈不悲哉!” - 許維遇, 《呂氏春秋集釋》下, 卷20 551쪽.

였다. 《여씨춘추》의 [22]번 이야기는 《장자》의 봉새 우언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자》에서의 봉새 우언의 전개 구조와 [22]번에서 언급하고 있는 鴻鵠과 봉황 이야기에서는 유사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여씨춘추》의 [22]번 이야기는 먼저 《장자》의 봉새 우언이 구성된 방식처럼 크기의 대조를 이루는 동물들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전개한다. 홍곡과 봉황은 크기가 큰 새로 한 번 날면 천리를 날아갈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제비와 참새는 크기가 작은 동물들이다. 두 번째로 [22]번 이야기는 《장자》에서 언급한 봉새, 매미와 학구의 성격을 그대로 활용하여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22]번 이야기에서 홍곡과 봉황은 《장자》에서의 봉과 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 번 움직이면 천리를 날아가기 때문이다. 즉 봉새처럼 비범한 성격을 지닌 것이다. 《장자》의 봉새 우언에서 등장하는 작은 동물인 매미와 학구가 봉새를 비웃는 것처럼 《여씨춘추》 [22]번 이야기 속의 제비와 참새는 홍곡과 봉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제비와 참새는 이 거대한 새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 번 움직이면 천리를 날아가는 봉황과는 달리 좁은 공간을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회남자》에서도 《장자》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을 차용하여 예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 무릇 우물 안의 물고기와 ‘큰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물고기가 ‘우물’이라는 좁은 환경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고, 여름 한철만 사는 곤충과 추위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곤충이 여름 외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편협한 선비와 지극히 높은 도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세속에 구속되고 좁은 가르침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⁸⁷⁾

《회남자》의 [23]번 이야기에서는 《장자》〈추수〉편에서 언급된 우물 안 개구리 이야기를 예증으로 활용하고 있다.

87) 본고의 앞부분에서 다룬 [3], [3-1], [3-2]의 우언과 비교를 진행하기로 한다. 《莊子》의 우언을 다룬 부분은 본고의 18-19쪽을 참고.

88) 《淮南子》〈原道〉, “夫井魚不可與語大, 拘於隘也; 夏蟲不可與語寒, 篤於時也; 曲士不可與語至道, 拘於俗, 束於教也.” - 劉晏, 앞의 책, 70쪽.

제 4 절 소결: 편집 의도에 따른 우의 획득의 가능성

《여씨춘추》와 《회남자》의 동식물우언은 《장자》나 《한비자》의 동식물우언과 공통점이 존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공통점은 바로 《여씨춘추》와 《회남자》의 동식물우언에서도 《장자》나 《한비자》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처럼 독자적인 우의를 가지는 우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씨춘추》와 《회남자》에서는 《장자》에 실려 있는 우언이 유사하게 활용된 경우가 있다. 《여씨춘추》〈효행람·필기〉편은 《장자》〈산목〉편에서 등장한 나무와 관련된 우언을 활용했고 《회남자》〈남명〉편에서는 《장자》〈소요유〉편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봉새와 관련된 우언을 활용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여씨춘추》와 《회남자》의 동식물우언은 원작에서 등장한 이야기가 유사하게 활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작가의 편집 의도에 따라 다른 우의를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가 활용되어 있는 텍스트의 전반적인 맥락과 연관하여 우언이 다르게 해석될 필요성을 가진다. 우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우의를 통해 해석할 경우 텍스트 전반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성이 적어지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특징은 《장자》 혹은 《한비자》에 근원을 두고 있는 동식물우언을 차용하여 요지를 전개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하겠다.

제 4 장 立論의 도구로서의 동식물우언

제 1 절 구조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둔 이질성

이상 본론을 통해 선진 양한 시기의 제자백가서로 알려진 《장자》, 《한비자》, 《여씨춘추》, 《회남자》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을 발췌하고 분석하였다. 선진 양한 시기의 지식인들은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고 주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우언이라는 글쓰기의 특징을 활용하였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들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들은 대부분 《장자》의 동식물우언을 활용하거나 《장자》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과 유사한 형태로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와 같은 구조의 유사성은 《장자》를 제외한 나머지 텍스트들에서 《장자》의 동식물우언의 내용과 형식을 차용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에서 그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에 의해서 연구 대상 텍스트들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의 서사 구조는 유사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선진 양한 시기의 지식인들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의 흐름에 따라 원래 우언이 가지는 우의에 새로운 틀을 덧씌웠다. 다시 말해 의도적인 구성 또는 편집의 방식을 활용하여 원작의 우언이 가진 우의에 새로운 의미를 덧씌우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따라서 선진시기 제자백가의 동식물우언은 원류는 유사하지만 구조적 특성에 의해, 그리고 지식인들이 하고자하는 주장에 따라 각자 다른 우의가 덧붙여지게 되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각자 지식인들마다 우언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제 2 절 설득의 구성과 사유의 구현

전통시기 중국에서 동식물을 소재 등으로 활용한 비유적 수법은 이미 《시경》 전

통에서도 존재했다. 이처럼 비유적 수법은 점차 문자 기록이 발달하자 우언 글쓰기의 형식으로도 나타나게 되었다. 우언 글쓰기는 우언이 탄생한 시기인 선진 시기에 이르자 많은 저서에서 활용되었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우언의 양도 많았다. 그 중에서 다량의 우언이 집적되어 있는 제자백가서의 텍스트인 《장자》, 《한비자》, 《여씨춘추》, 《회남자》의 동식물우언은 설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장자》와 《한비자》는 동식물우언에서 의인화된 동식물들의 대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설득의 방식을 묘사했다. 반면 《여씨춘추》와 《회남자》는 의인화된 동물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씨춘추》와 《회남자》는 동식물우언을 여러 단편 이야기들과 함께 나열하면서 한 편의 문장 속에서 주제의 뒷받침 근거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활용 양상은 우언이라는 글쓰기 자체가 설득의 방식 중 하나로 인식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문장 속에서 동식물이 의인화 되어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구성 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지식인들이 우언을 활용한 것은 우언이 지어진 당시 사회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설득의 방식은 수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아뢰는[主文而譎諫] 처세법과 관련된 것이다. 즉 자신의 사상을 토대로 遊說해야 했던 지식인들은 설득의 방식을 서사에 활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했던 사유와 주장들을 직설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아뢰으로써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죄가 없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죄가 없는 방식을 활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선진 양한 시기 지식인들은 이처럼 듣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하여 우언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2장과 3장에서 발췌해본 결과처럼 동식물우언의 수량은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우언의 수량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러한 양상은 《尙書》〈고명〉⁸⁹⁾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상서》〈고명〉편에서는 서사를 짧은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내용이 사건의 우여곡절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거에 대한 기술을 자세하게 했다는 것이다. 즉 전통시기 중국에서는 서사가 목적 지향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 지향적인 서사의 성격은 전통 시기 중국의 서사에 두 가지의 특

89) 홍상훈, 《전통 시기 중국의 서사론》, 37-42쪽 참고.

성을 부여한다는 홍상훈의 지적⁹⁰⁾은 주목할 만하다. 홍상훈은 전통시기 중국의 서사가 역사 기술로부터 논해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하나는 보존과 전달이라는 목적을 위해 경험을 통한 지식의 검증과 축적이 중요하므로 서사 시간이 현재와 그에 연결된 과거로 소급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서사의 시간이 과거로 소급되는 경향 때문에 역사 기술에서부터 중국의 서사 행위가 논해 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선진 양한 시기의 우언과 같은 초기의 서사물들에서는 경험적으로 쉽게 검증 가능한 역사 기술이 우세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허구적인 성분은 역사 기술과 같은 양상의 부분 집합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명대에 이르기 전까지도 계속 이어졌다. 이런 이유로 서양에서 현재의 삶을 상징적으로 반영하여 허구적 서사에서 다양하게 활용했던 것과 달리 전통 시기 중국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서사의 기능과 가치가 주목되지 못했다. 결국 명대에 들어서도 중국인들은 서사 행위자체를 하나의 유용한 담론(discourse) 행위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다.⁹¹⁾ 이러한 양상은 《여씨춘추》와 《회남자》처럼 여러 가지 사상들을 한 데 묶어 편찬한 저술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이 두 텍스트들은 《장자》에서 활용된 동식물우언들을 차용하여 우언을 작성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원작인 《장자》에서는 의인법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한 우언이 있음에도 우언에 포함된 의인법을 생략하고 역사 기술을 하는 것처럼 수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 시기 중국 우언 글쓰기의 이러한 특징은 서양에서 말하는 우화(fable)의 특징과 공통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서양 우화의 주요 특성으로 언급되는 의인법은 비인간에게 환상적 설정을 통해 인간적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 속성을 부여받은 동물들은 현실에서 받아들여지는 논리나 자연법칙을 넘어서는 양태를 보인다. 다시 말해 의인법은 反事實의 문학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태환에 따르면 헤겔은 동물 우화의 사실주의적 측면을 강조한다. 즉 진정한 이솝 우화는 자연계의 생물이나 무생물의 어떤 상태, 또는 동물 세계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이솝 우화에 요구되

90) 홍상훈, 위의 책, 41-42쪽 참고.

91) 홍상훈, 위의 책, 39-42쪽 참고.

는 것은 교훈을 말해줄 특정한 사태가 그저 꾸며낸 것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과 반대되는 식으로 꾸며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⁹²⁾

92) 김태환, 《의인법과 서사적 구조 — 이솝우화를 중심으로》, 183-186쪽 참고.

제 5 장 결 론

본고에서는 논의를 통해서 선진 양한 시기의 제자백가서 중에서 《장자》, 《한비자》, 《여씨춘추》, 《회남자》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를 통해 당시 지식인들의 글쓰기에서 활용된 동식물우언의 양상을 파악하며 당시 등장한 동식물우언이 왜 이와 같은 양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인지를 확인해보려고 하였다.

2장에서는 《장자》와 《한비자》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 중에서 의인법을 활용한 우언을 선별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장자》는 우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텍스트로 선진 양한 시기의 텍스트 중에서도 동식물우언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의인법을 활용한 동식물우언도 다른 텍스트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다. 그에 비해 《한비자》는 나머지 텍스트들 중에서 의인법을 활용한 우언을 발췌할 수는 있었으나 《장자》에 비해서는 그 수량이 적은 편이었다.

3장에서는 《여씨춘추》와 《회남자》의 동식물우언을 발췌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여씨춘추》와 《회남자》에는 《장자》에 실려 있는 동식물우언을 활용하여 전개한 우언들이 다수 실려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회남자》에서는 《여씨춘추》에서 쓰인 동식물우언을 활용하여 또 다른 우언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존재했다. 《여씨춘추》에 실려 있는 《장자》의 동식물우언은 유사한 구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조가 유사하더라도 이야기가 품고 있는 우의는 《여씨춘추》의 텍스트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회남자》에서는 《여씨춘추》와 《장자》내의 동식물우언을 차용하여 주장에 알맞게 이야기를 변형하거나 우의를 덧씌우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회남자》보다 앞선 시기에 지어진 여러 텍스트들의 우언들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맥락에 맞게 활용되었다고 하겠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분석한 동식물우언의 특징을 통해서 선진 양한 시기 동식물우언의 양상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진 양한 시기 지식인들은 우언의 글쓰기를 활용한 맥락과 의도에 따라 묘사해내는 이야기의 방식이 달라진

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우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구조와 이야기 내에서 설정한 등장인물을 통해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방식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식인들이 활용한 동식물우언의 수량은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우언보다 그 수량이 적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시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사에 대한 개념적 인식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지식인들은 서구에서의 서사에 대한 인식과 달리 서사라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유용한 담론 행위로 취급하여 생각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우언을 서사 양식과 관련하여 연구한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 본고에서는 우언을 글쓰기의 한 양상으로 전제하여 보다 큰 범위에서의 서사 속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선진 양한 시기의 우언 중에서도 동식물을 활용한 우언들만을 가려 분석하였다. 동식물우언을 발췌하고 분석한 결과 그 수량은 명청시기 중국에서 《이슥우화》가 번역된 이후의 수량보다는 비교적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인법이 활용된 동식물우언의 수량 역시 적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전통시기 중국에서 상상과 허구 보다는 역사를 중시하고 사건의 나열과 관련된 서사에 대한 인식과 연관 지어 파악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분석을 전통시기 중국에서 활용된 우언 글쓰기의 전반적인 서사에 대한 분석으로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다. 다만 본고에서 진행한 연구를 통해 우언 글쓰기의 한 양상으로 동식물을 활용한 서사는 선진 양한 시기의 중국에서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사실은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언 서사에 대한 일반화 작업과 분석하지 못한 나머지 소재들은 추후의 연구에서 보충하기로 한다.

【參考文獻】

1. 底本

- 王先謙, 劉武, 《莊子集解·莊子集解內篇補正》(沈嘯寰 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87.
- 王先慎, 《韓非子集解》(鍾哲 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2003.
- 何寧, 《淮南子集釋》上, 北京: 中華書局, 1998.
- _____, 《淮南子集釋》中, 北京: 中華書局, 1998
- _____, 《淮南子集釋》下, 北京: 中華書局, 1998
- 許維通, 《呂氏春秋集釋》上, 北京: 中華書局, 2009.
- _____, 《呂氏春秋集釋》下, 北京: 中華書局, 2009.

2. 원전 및 역주서

- 郭慶藩, 《莊子集釋》, 臺北: 世界書局, 民國79(1990).
- 呂不韋, 김근 역, 《呂氏春秋: 제자백가의 위대한 종합》, 파주: 글항아리: 문학동네, 2012.
- 呂不韋, 정하현 역, 《呂氏春秋》, 서울: 소명출판, 2011.
- 劉 晏, 이석명, 《淮南子》1~2, 서울: 소명출판, 2010.
- 司馬遷, 《史記》(裴駟 集解, 司馬貞 索隱, 張守節 正義), 北京: 中華書局, 1982.
- 邵增樺, 中華文化復興運動推行委員會, 國立編譯館中華叢書編審委員會 主編, 《韓非子今註今譯》上冊,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72(1983).
- _____, 中華文化復興運動推行委員會, 國立編譯館中華叢書編審委員會 主編, 《韓非子今註今譯》下冊,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72(1983).
- 劉文典, 《淮南鴻烈集解》(馮逸, 喬華 點校本) 上, 北京: 中華書局, 1989.
- _____, 《淮南鴻烈集解》(馮逸, 喬華 點校本) 下, 北京: 中華書局, 1989.
- 劉勰, 附令 譯, 周振甫 注, 《文心雕龍注釋》, 臺北: 里仁書局, 民國73(1984).
- 莊 周, 김학주 역, 《莊子》, 고양: 연암서가, 2010.
- 張雙棣, 張萬彬, 殷國光, 陳濤, 《呂氏春秋》, 北京: 中華書局, 2007.
- 韓 非, 임동석, 《韓非子》1~5, 서울: 동서문화사, 2013.
- 오만중, 양희석, 김태완, 장춘석, 《중국 고대 학술의 길잡이: 《漢書·藝文志》註解》,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05.

3. 단행본

- 갈조광, 이등연·심규호·양충렬 역, 《중국사상사1: 7세기 이전 중국의 지식과 사상 그리고 신앙세계》, 서울: 일빛, 2015.
- 권영민, 《풍자 우화 그리고 계몽담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 김월희, 박영희, 박지현, 이소영, 김진공, 민경옥, 정진선, 안정훈, 홍상훈, 김진곤, 《문명장치로서의 이야기》, 서울: 소명출판, 2018.
- 김현주, 《고전서사체 담화분석》, 서울: 보고사, 2006.
- 김희정, 《몸·국가·우주 하나를 꿈꾸다: 황제사경, 관자사편, 회남자, 황제내경 연구》, 서울: 궁리, 2008.
- 노스롭 프라이,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파주: 한길사, 2000.
- 노에 게이치, 김영주 역, 《이야기의 철학: 이야기는 무엇을 기록하는가》, 서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9.
- 리찌허우, 정병석 역, 《중국고대사상론》, 파주: 한길사, 2007.
- 마르셀 그라네, 유병태 역, 《중국사유》, 파주: 한길사, 2015.
- 미조구치 유조, 이케다 도모히사, 고지마 쓰요시, 조영렬 역, 《중국 제국을 움직인 네 가지 힘》, 파주: 글항아리, 2012.
- 바이시 지음, 이임찬 역, 《직하학 연구》, 고양: 소나무, 2013.
- 벤자민 슈위츠, 나성 역, 《중국 고대 사상의 세계》, 서울: 살림출판사, 2004.
- 서경호, 《중국 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 _____, 《중국소설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앤거스 그레이엄, 나성 역, 《도의 논쟁자들: 중국 고대 철학 논쟁》, 서울: 새물결, 2015.
- 여불위, 김근 역, 《여씨춘추: 중국적 실용주의의 기원》, 서울: 살림, 2005.
- 유협, 성기옥 역, 《문심조룡》,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 윤승준, 《動物寓言의 傳統과 寓話小說》, 서울: 月印, 1999.
- 이병환, 이영주, 《열흘 붉은 꽃 없다: 중국의 지혜로운 이야기》, 서울: 현암사, 1994.
- 이석명, 《회남자: 현대 지식의 집대성》, 서울: 사계절, 2004.
- 장백잠, 김병채 역, 《동양적 삶의 지혜 上: 諸子들의 인물에 관한 고찰》,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 _____, 《동양적 삶의 지혜 下: 諸子들의 저술에 관한 고찰》,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 진고응, 최진석 역, 《老莊新論: 노자 장자철학의 새로운 이해》, 서울: 소나무, 1997.

- 짙룡시, 백승도 · 서은숙 · 조미원 역, 《도와 로고스: 해석적 다원주의를 위하여》, 서울: 강, 1997.
- 천푸칭, 오수형 역, 《중국우언문학사: 이솝 우화를 능가하는 중국 우언의 세계》, 서울: 소나무, 1994.
- 천푸칭, 윤주필 역, 《세계의 우언과 알레고리》, 파주: 지식산업사, 2010.
- 풍우란,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서울: 까치, 1999.
- 홍상훈, 《전통시기 중국의 서사론》, 서울: 소명출판, 2004.
- Chatman, Seymour Benjamin,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서울: 푸른사상, 2003.

4. 논문류

- 权娥麟, 〈汉魏晋南北朝寓言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 季璇, 〈先秦动物寓言研究〉, 廣西师范大学 碩士學位論文, 2016.
- 陈蒲清, 〈《淮南子》寓言與黄老之术〉, 求索, 湖南省社会科学院, 1993.
- 고비, 〈1888年前伊索寓言汉译研究: 以《况父》、《物感》、《意拾喻言》、《海国妙喻》为主〉,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고지영, 〈《莊子·內篇》의 문학적 글쓰기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권석환, 〈先秦寓言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권아린, 〈한위진남북조 우언(寓言)의 문학적 위상에 관한 재평가〉, 한국중국산문학회, 《중국산문연구집간》, Vol. 1, 2011.
- _____, 〈우언의 “기탁성(寄託性)”에 대한 재론(再論)〉, 한국중문학회, 《中國文學研究》, Vol. 53, 2013.
- 김원중, 〈《韓非子》를 통해서 본 韓非子의 글쓰기 전략에 관한 몇 가지 검토〉, 한국중국문화학회, 《中國學論叢》, Vol. 49, 2016.
- 김월희, 〈《論語》와 《老子》의 글쓰기 분석 — 논증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중국어문학회, 《中國文學》, Vol. 51, 2007.
- _____, 〈직하학궁(稷下學宮)과 전국시대(戰國時代)의 글쓰기 — 《순자(荀子)》와 《장자(莊子)》를 중심으로〉, 한국중국어문학회, 《中國文學》, Vol. 55, 2008.
- _____, 〈선진(先秦)의 복수 이야기와 그 독법〉, 한국중국어문학회, 《中國文學》, Vol. 76, 2013.
- 김태환, 〈의인법과 서사적 구조— 이솝우화를 중심으로〉, 한국구비문학회, 《口碑文學研究》, Vol. 45, 2017.
- 백승도, 〈《莊子》에서 ‘도’는 어떻게 말해 지고 있는가?: ‘卮言’을 통해 본 〈內篇〉의 구조〉, 한국도교문화학회, 《도교문화연구》, Vol. 23, 2005.
- 안정훈, 〈‘잡가(雜家)’를 위한 변명 - 중국 고대 목록서 ‘잡가(雜家)’ 고찰〉, 《中國文

- 學》, Vol. 56, 2008.
- 오수형, 〈명대(明代)의 우언문학(寓言文學) 연구(研究)〉, 한국중국어문학회, 《中國文學》, Vol. 24, 1995.
- 오순방, 〈명청시기(明清時期) 기독교선교사(基督教宣敎士)의 종교우언고사(宗教寓言故事) 서술(敍述) 특성(特性) 연구(研究) — 마테오 리치에서 윌리엄 마틴까지〉, 한국중국어문학회, 《中國文學》, Vol. 67, 2011.
- 윤승준, 〈朝鮮時代 動物寓言의 傳統과 寓話小說〉,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_____, 〈우언의 특성과 동물우언의 문학적 전통〉, 단국대학교퇴계학연구소, 《退溪學研究》, Vol. 12, 1998.
- 이은진, 〈《艾子雜說》의 諧謔性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정학성, 〈우언 양식의 서사구조와 비판정신〉,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東洋學》, Vol. 38, 2005.
- 조경은, 〈우언(寓言)의 담화 원리와 <양반전(兩班傳)>의 해석〉, 한국고소설학회, 《古小說 研究》, Vol. 26, 2008.
- 최나, 〈근대 계몽기의 동물 서사 양상 연구〉, 중앙어문학회, 《語文論集》, Vol. 62, 2015.
- 홍상훈, 〈고대 중국에서 서사 구조 변천의 특성〉, 한국중국어문학회, 《中國文學》, Vol. 61, 2009.
- 홍상훈, 〈고대 중국에서 서사의 유비적 특성과 그 변천〉,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인간·환경·미래》, Vol. 4, 2010.

中文提要

先秦 兩漢 時期 動植物寓言 研究

— 以《莊子》、《韓非子》、《呂氏春秋》、《淮南子》爲主 —

全 雅 永

寓言是指借外論外，即藉外論之。也就是說，運用隱晦的比喻手法編寫故事，不采用直接的表達方式。寓言故事誕生於春秋時期的亂世，是文人傳遞訊息和游說時常用的一種寫作形式。

前人研究主要集中於古代中國寓言的發掘和目錄整理，以及修辭結構分析，旨在探索故事蘊含的真諦。並且在研究分析寓言的修辭結構時，研究方式可歸爲廣義和狹義兩種。狹義的是指將寓言看做一種修辭方法，廣義的則指將寓言看作一種婉轉的談話方式或寫作形式。

本文提到的寓言不是狹義的修辭方式，而是將寓言看作一種寫作形式，包含於廣義的敘事手法里。本文的研究對象是收錄於諸子百家中的《莊子》、《韓非子》、《呂氏春秋》、《淮南子》。本文使用了以動植物爲素材或制裁的文本，本研究的目的是對研究對象是否運用動植物寓言手法這一點做出判斷，並具体分析此類現象。

《莊子》、《韓非子》、《呂氏春秋》、《淮南子》是大量運用‘議論故事’的文本。‘議論故事’是指先秦時期諸子百家書當中敘事與議論相結合的故事文本。其中，《莊子》和《韓非子》文本的特点是在運用動植物寓言這一手法的同時還添加了擬人手法。因此，故事具有獨特的寓意。這兩個文本當中的動植物寓言即使沒有任何背景做鋪墊也能獨立表達作者想要傳遞的寓意。

儘管《呂氏春秋》、《淮南子》也運用了動植物寓言這一手法，但並沒有用擬人手法完成故事。在《呂氏春秋》、《淮南子》里運用的動植物寓言也像《莊子》、《韓非子》里記

載的動植物寓言一樣具有獨特的寓意。但值得注意的是在《呂氏春秋》和《淮南子》里的動植物寓言可以隨着作者編輯意圖獲得不同的寓意。因此有必要根据整个文本的上下文進行細致的解讀。

本文中，只分析了先秦時期使用動植物的寓言故事。從動植物寓言故事的摘彙和分析中可以看出，先秦時期的動植物寓言故事少于明代翻譯完“伊索寓言”后的數量。在本文中，還發現了使用擬人手法的動植物寓言故事數量甚少。

總之，通過本文的研究可以得出如下結論。由于當時的社會环境更傾向于重視歷史，或羅列事件，因此運用動植物寓言手法的寓言故事數量甚少。此外，通過本文的研究可以証明動植物寓言是從先秦、兩漢時期流傳至今的。

關鍵詞: 寓言, 敘事, 先秦, 兩漢, 動植物寓言, 《莊子》, 《韓非子》, 《呂氏春秋》, 《淮南子》

學 號: 2015-22444